

리아호나

커버 스토리:
선지자 조셉에게서
배움, 30쪽

새로운 상호 향상 모임 주제—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함, 42쪽

부록: 초등회 포스터





선 지자 조셉 스미스의 많은 업적 중에는 후기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 토대를 마련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주님께서는 조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는 너를 통하여 나의 말을 가지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5:10) “선지자 조셉 스미스, 비범한 교사”, 30쪽 참조.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심사도 정회원: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러,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욱스, 엘 러셀 벨라드, 조셀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편집인: 제이 이 켈슨
고문: 게리 제이 콜먼, 요시히코 기구찌, 제럴드 앤 렌드, 더블류 더글라스 섬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네흐트
편집 책임자: 비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아담 시 율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넷
편집 스태프: 크리스티 밴즈, 린다 스탈 쿠퍼,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라렌 포터 곤트, 캐리 카스텐, 제니퍼 메디, 엘리자 메일,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제이 오데카르, 주디스 엠 팔러, 비비안 폴슨, 조슈아 제이 퍼키, 김벌리 레이드, 리처드 엠 롬니, 돈 엘 설, 제닌 토마스, 폴 밴덴버그, 줄리 워델
선임 비서: 로벨 튜셔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밴 켈먼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 이리오, 콜레트 네베커 오온, 히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캐슬린 히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버, 지니 제이 넬슨, 랜달 제이 픽스톤
사진 인쇄: 제프 멀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크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권: 제502호, 제45권, 제1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8년 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 윤 환
 편집인: 박 승 호
 번역 책임자: 박 환 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참판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리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리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니아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카리비시아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타이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08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January 2008 Vol. 32 No. 1.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30 선지자 조셉 스미스, 비범한 교사



37 자존심보다 결혼 관계를 먼저

표지
 앞: 숲속의 조셉 스미스, 에이 디 쇼,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 제공. 뒤: 첫 번째 물문경의 인쇄, 게리 스미스

친구들 표지
 삽화: 달린 마쉬

성인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다리를 짓는 훌륭한 건축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18 물문경: 구주의 평안을 전해 주는 위대한 도구 날 엘 앤더슨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가르쳐 주셨다
- 26 우리 가족을 변화시킨 상호부조회 공과 익명
- 30 선지자 조셉 스미스, 비범한 교사 제이 이 켈슨 장로
- 37 자존심보다 결혼 관계를 먼저 아이린 유뱅크스
- 38 어느 와드에서든 "편안하게" 캐서린 피 풍
- 44 후기 성도의 소리
 나는 왜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났을까?
 스텐 버드
 제가 어떻게 교회에 갈 수 있을까요?
 알베르트 보카
 응답이 담겨 있는 책
 알렉산드라 마리아 페레이라 드 플라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 오브리 윌리엄스
- 48 애독자 편지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다음 제언은 가정에서만 아니라 교회 공과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이나 반원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우선순위를 세움”, 10쪽:

다음 활동은 우선순위를 세우는 방법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고립되었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할 열 가지 물건은 무엇일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할 열 가지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 목록을

비교해 본다. 이 글 중 가족과 함께 “성약에 기반한 삶” 부분을 함께 읽는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다른 모든 우선순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토론해 본다.

“물문경: 구주의 평안을 전해 주는 위대한 도구”,

18쪽: 물병을 보여 주고 가족에게 건네준다. 우리의 몸은 물을 갈구하며 물을 마신 후 활력을 찾는다는 것에 대해 토론한다. 물문경, 그리고 평화와 진리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물과 비교해 본다. 물문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화에는 어떤 것들이





홍해 부근을 여행할, 케리 스미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참으로 꿈에 나의 부친에게 명하여, 가족을 데리고 광야로 떠나도록 명령하셨느니라 ... 그리하여 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느니라 ... 그의 집과 그의 기업의 땅과 ... 그의 귀한 것들을 버려두고, 그의 가족 ...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광야로 떠났느니라. 그리고 그는 ... 홍해에 더 가까운 변경의 광야를 여행하였으며.” (니파이전서 2:2~5)



올해의 매 호마다 정의반 반지를 숨겨 두었습니다. 이번 호에 숨겨진 영어로 된 반지를 찾으면서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도록 도울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 8 가장 낮은 지도자라니?
카를로스 윌머 멘도사 바스케스
- 10 우선순위를 세움
고원용 장로
- 14 리하이는 이곳에 있었는가?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 24 여러 가지 언어로 된 책
듀에인 이 하이아트
- 29 아이디어 목록: 건강과 힘
- 41 포스터: 굳건히 서라
- 42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함
본부 청남 회장단 및 청녀 회장단



24 여러 가지 언어로 된 책

42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함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새날의 빛
고든 비 항클리 회장
- 친4 나의 삶은 선물이네; 나의 삶에는 계획이 있어.
린다 크리스틴슨
- 친6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훌륭하신 부모에게서 태어나
- 친8 저는 물문경을 읽겠습니다 줄리 터 레이크
- 친10 넥타이의 교훈 크리스틴 캔들러
- 친13 색칠하기
- 친14 친구 사귀기: 선교사로 자라나는 소년 존 케이, 스코틀랜드
파이프 글렌로스 김벌리 웹

부록: 어린이

포스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친10 넥타이의 교훈



친14 선교사로 자라나는 소년



있는지 기사에 나오는 개인적인 경험과 이야기를 활용하여 대화를 나눈다.

“우리 가족을 변화시킨 상호부조회 공과”, 26쪽: 상호부조회 공과에 대한 이야기를 소리 내어 읽는다. 가족에게 두 가지 목록 만드는 일을 도와달라고 한다. 한 가지 목록은 여러분의 가족이 직면한 “불뱀”을, 다른 한 가지는 구주께 도움을 청하여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나열한 것이다. 두 번째 목록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지 토론한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불뱀과 맞서 싸우기 위해 구주께 집중하여 힘을 얻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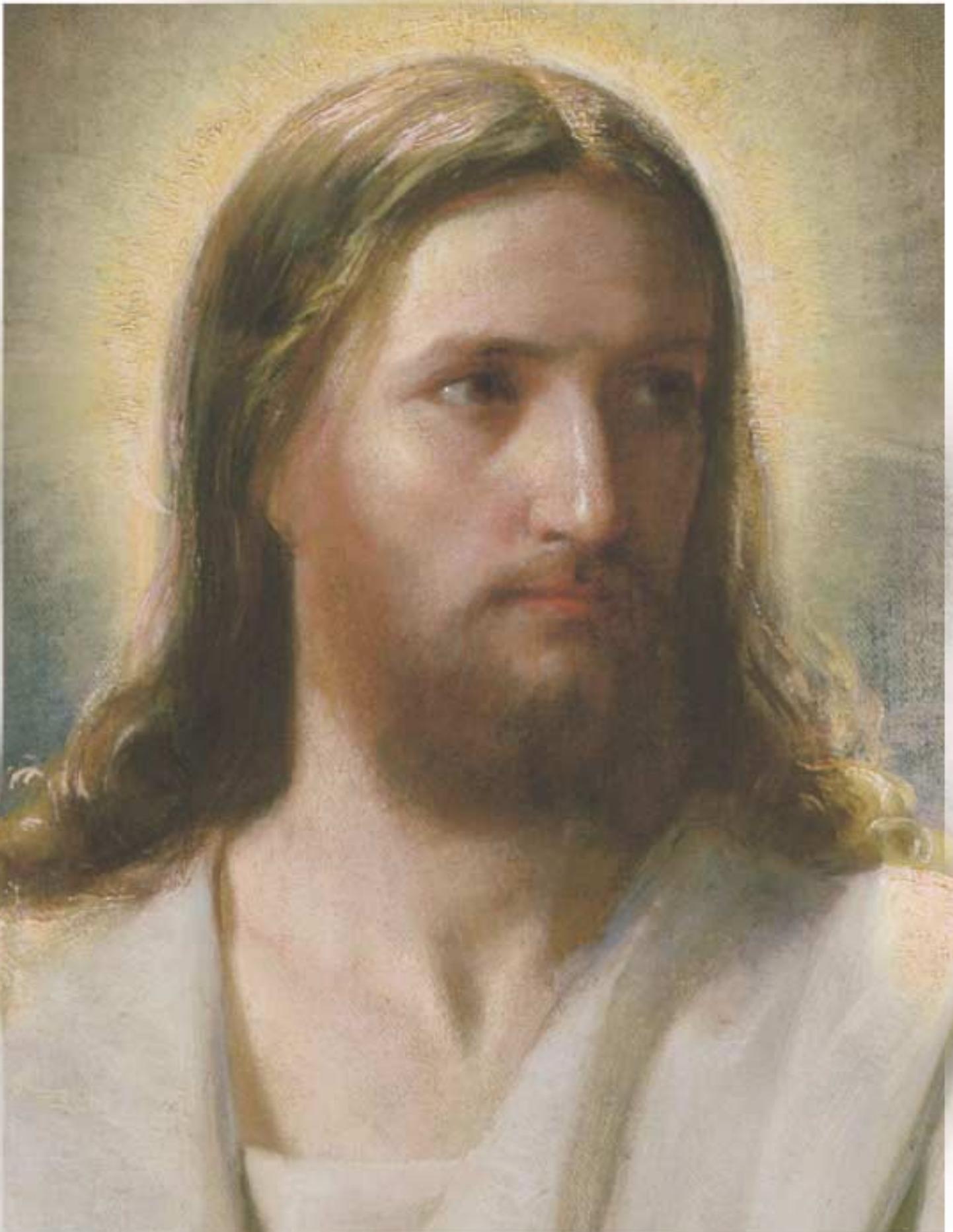
경험을 가족들에게 간증한다.

“넥타이의 교훈”, 친10쪽: 라이언의 어머니가 라이언에게 감독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말하는 부분까지 소리 내어 읽는다. 가족에게 라이언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라고 한다.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와드는 대가족과 같으며 감독님은 그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라이언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토론한다. 감독 또는 지부 회장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도록 가족들에게 권유한다.

이번 호의 주제들

숫자는 기사의 첫 번째 페이지를 나타냄

친-친구들	선교 사업 준비, 8, 친14쪽
가르침, 1, 30쪽	선행, 41, 42쪽
가정 복음 교육, 2쪽	순중, 2, 45쪽
가정의 밤, 1, 26쪽	신성한 성품, 친2, 친13쪽
간증, 18쪽	영적 건강, 29쪽
감독, 친10쪽	예배, 친2쪽
격려, 44쪽	예수 그리스도, 2쪽
결혼, 37쪽	우선순위, 10쪽
경전 공부, 26쪽	우정 증진, 8, 38쪽
굳건함, 41, 42쪽	육아, 26, 친6쪽
기도, 2쪽	음악, 47쪽
모범, 42쪽	인생의 목적, 25, 친4쪽
물문경, 14, 18, 24, 30, 46, 친8쪽	조셉 스미스, 30쪽, 친6쪽
방문 교육, 25쪽	집사, 8쪽
봉사, 2, 8쪽	초등학교, 친4쪽
사랑, 친2쪽	평화, 18쪽



다리를 짓는 훌륭한 건축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여러 해 전에 데이비드 에스 라벤더가 쓴 *The Way to the Western Sea* (서쪽 바다로 가는 길)이란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태평양에 이르는 육로를 찾자 북미 대륙을 횡단하던 그 유명한 탐험대를 이끈 메리웨더 루이스와 윌리엄 클라크의 영웅적이고 흥미진진한 여행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악몽과도 같은 고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깊은 골짜기들을 지나 배를 타고 갈 만한 강줄기를 만날 때까지 무거운 필수품으로 가득 찬 배를 든 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읽으며, 저는 “골짜기나 거센 물결을 지나는 현대식 다리라도 있었다면” 하고 자주 생각하곤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자랑인 아름다운金門교나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의 견고한 하버 브리지, 또는 다른 여러 나라의 다리들과 같은 우리 시대의 웅장한 다리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모두 여행자, 아니 필멸의 세계를 지나는 탐험가들입니다. 우리는 이 탐험에 대한 사전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자신만의 인생길을 여행하는 동안 가파른 절벽과 소용돌이치는 물길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아마도 그런 암담한 생각이 시인 월 앨런 드럼굴리의 고전시 “다리를 짓는 사람”에 영감을 불어넣었을지도 모릅니다.

외딴길을 가는 한 노인이
쭈고 음산한 해질녘
크고 깊고 넓은 협곡에 이르렀네
그 아래로 거친 계곡물 흐르고
땅거미 짙게 내리는데 노인은
음침한 계곡을 두려움 없이 건너네
무사히 건너편에 이르자 뒤돌아
계곡물 지나는 다리를 짓네
“이보게” 곁에서 여행하던 친구가 말하네
이곳에 다릴 짓느라 힘을 허비하다니
이 여행도 죽고 나면 다 끝나네
다시는 이 길을 지나갈 일이 없을 걸세
깊고 넓은 협곡을 건넌건만
왜 이 밤에 다리를 짓는단 말인가?
노인은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들고 말하네
“좋은 친구여, 내가 걸어온 이 길을
오늘 내 뒤 따라오는 사람 있으니
바로 이 길을 지나야 하는 젊은이라네
내겐 아무것도 아닌 이 협곡이
금발의 그 젊은이에겐 위험이 될 수도 있다네
그 또한 땅거미 속에 건너야 하니
좋은 친구여, 나는 그를 위해 다리를 짓는다네!”

이 시의 메시지는 제 생각을 일깨웠고 제 영혼에 위안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다리의 설계자이시며 건축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다리의 설계자이시며 건축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들을 만드셨습니다.

영광오에서의 그리스도의 상제 부분, 킹 히먼리히 불튼지, 덴마크 헬렌드 프러드리스버그 소제 쿠린, 역사 박물관 제공, 북서 금지, 사진 촬영: 부시스 포토그래피

예

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시면서 개인적인 순종의 변함없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광야에서 오래 금식하신 후에 유혹을 받자 “사탄아 물러가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다리들을 만드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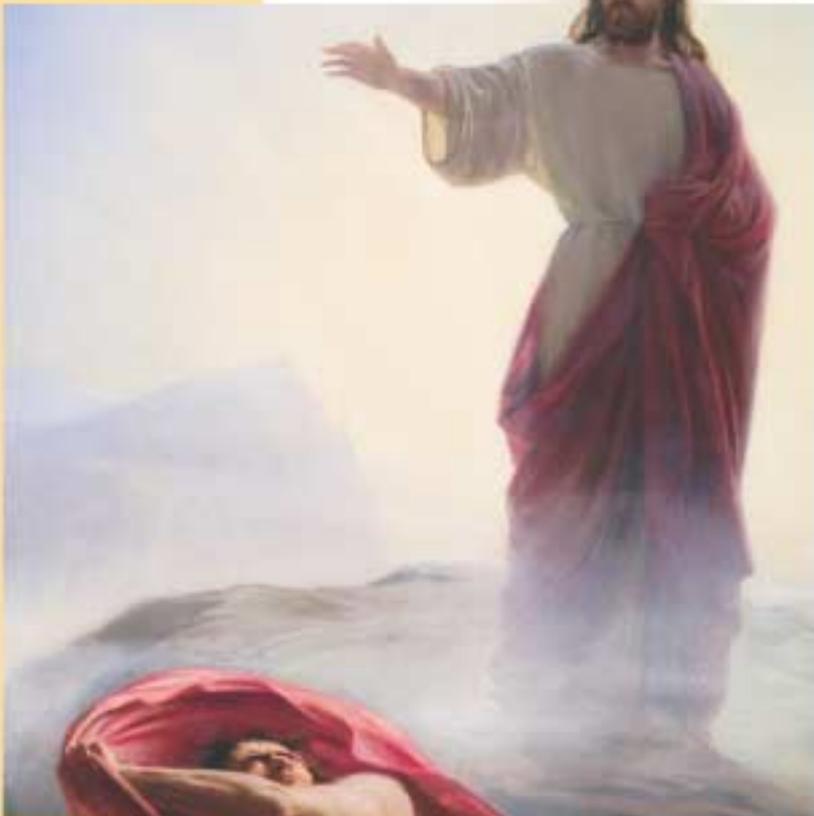
구주의 사명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²

이어 그분의 탄생의 기적이 있었고, 목자들이 마구간으로, 그 어머니에게로, 그 아기에게로 서둘러 왔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별을 따라와 어린 아기에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전은 예수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³ 있었으며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⁴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구주께서 지으신 다리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을 보여 주시며, 그분이 이 필멸의 세상에서 어떤



개인적인 다리들을 짓고 건너셨습니까? 그분은 필멸의 삶이 위험과 어려움으로 가득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⁵

예수께서는 **순종의 다리**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시면서 개인적인 순종의 변함없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영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을 때, 그분은 금식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사탄은 모든 힘을 다해 그분을 유혹했습니다. 사탄의 첫째 유혹은 배고픔을 포함하여 구주의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구주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⁶

그 다음으로 사탄은 권세를 제안했습니다. 구주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⁷

마지막으로 구주께서는 부와 세상의 영광을 제안 받았습니다. 구주의 응답은 이러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⁸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 자신의 시대는 물론 우리 시대를 위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⁹

이 주제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TV 뉴스 보도 기자인 테드 코펠이 어느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한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가져온

사탄아 물러가라, 켈리안더러 불모지, 덴마크 왕비로도 프렌드리스버그 소재 국립 연서 박물관 제공, 인형에서 빛으로, 유대 주 아메리칸 포크 소재 엘티스 미술관 제공, 복서 금지



우 리는 봉사의
모범으로서
구주를
바라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상에
오셨지만 이웃에게 겸손히
봉사하셨습니다.

것은 열 가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명이었습니다.”¹⁰

마크 트웨인과 한 친구가 나누는 대화에 이런 유머가 나옵니다. 부유한 친구가 트웨인에게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난 성지 순례를 할 생각이네. 시내 산 정상에 올라 십계명을 소리 내어 읽을 걸세.”

트웨인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것들을 지키거나 하지 그래?”

우리가 건너도록 주님께서 마련하신 둘째 다리는 **봉사의 다리**입니다. 우리는 봉사의 모범으로서 구주를 바라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상에 오셨지만 이웃에게 겸손히 봉사하셨습니다. 그분은 지상에서 필멸의 인간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스런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축복하시고, 앓은뱅이를 걷게 하시고, 눈이 먼 자를 보게 하셨으며, 귀가 먼 자를 듣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구주는 그분께서 영광 중에 돌아오실 때 우편에 서게 될 충실한 사람들에 관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 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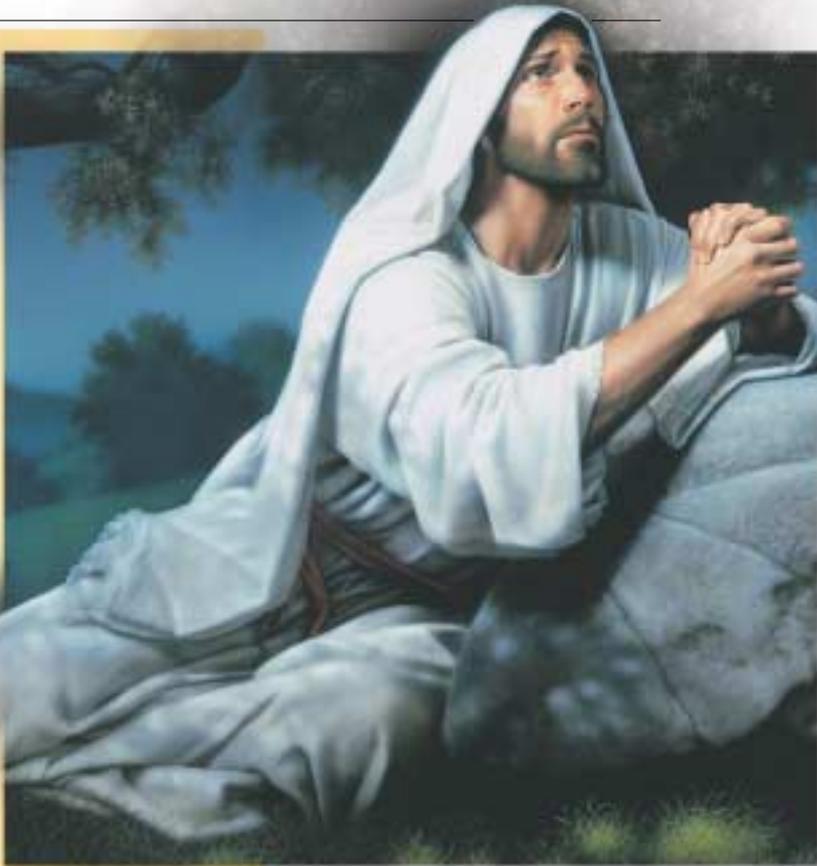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¹¹

언젠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엘 에번즈 장로님(1906~1971)은 이런 권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¹²

전혀 예기치 못한 뜻밖의 방식으로 제게 찾아온 봉사의 기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오랜 친구의 한 손녀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형제님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프랜시스 브렘스 형제님을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현재 105세이십니다. 작은 요양원에서 살고 계시지만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과 만나 그 곳에서 주일학교 공과를 전해 주시죠. 지난 일요일에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난 이번 주에 이 세상을 떠난단다. 토미 문슨 형제님에게 전화하여 이 사실을 알려 주겠니? 그러면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거야.’”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인류는 그분께서
지으신 다리를 건너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다음날 저녁에 브렘스 형제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귀가 멀어 말을 건넬 수도 없었고, 눈이 어두워 메시지를 읽도록 써 보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족들이 그의 오른 손가락을 잡고 그것으로 왼 손바닥에 방문한 사람의 이름과 메시지를 적어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그 방법을 따라서 그의 손가락으로 그의 손바닥에 토미 몬슨이라는 제 이름의 철자를 적었습니다. 브렘스 형제님은 기뻐하며 제 손을 잡더니 자신의 머리 위에 제 손을 올려 놓았습니다. 저는 신권 축복을 받는 것이 그분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요양원까지 차로 데려다 준 형제와 함께 저는 브렘스 형제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분이 그토록 바라던 축복을 해드렸습니다. 축복을 마치자 시력을 잃은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분은 우리 손을 꼭 잡았으며, 우리는 뭔가를 말하려고 그분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너무나 고맙습니다”였습니다.

바로 그 주에 브렘스 형제님은 자신이 예견했듯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전화 연락을 받았으며 그 후 장례식이 거행될 때 그 가족과 만났습니다. 봉사에 응할 기회를 미루지

않았던 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봉사의 다리는 우리가 그것을 자주 지나다니도록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기도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영을 네게 부어 주리니, 네 복이 크리라”¹³

기도와 관련하여 제게 보내 온 한 어머니의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때때로 저는 제 아이들의 인생에 제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생활비를 벌기 위해 두 가지 일을 하는 편모로서, 귀가해 어질러져 있는 집을 보며 가끔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연차 대회를 보고 있었는데 몬슨 회장님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들에게 벌써 기도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 주셨어요. 하루는 제가 뭘 여쭙 보려고 엄마 방에 갔는데 엄마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계셨어요. 엄마에게 그분이 중요하다면, 제게도 중요해요.’”

그 편지는 다음과 같이 끝맺었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부모가 먼저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 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게 될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모범

기도에 관한 어떠한 이야기도 겹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드린 기도만큼 제게 깊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누가복음에 그 기도가 가장 잘 묘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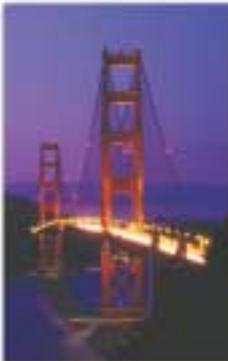
“예수께서 나가사 ... 감람 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¹⁴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가족들에게 종이와 필기 도구를 준 다음 다리 하나를 그리게 한다. 문슨

회장님의 권고에서 선정된 것을 나눔으로써 본문에 나오는 각각의 다리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각각의 다리들을 언급할 때 가족들이 자신이 그린 다리 위에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적도록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이 다리는 우리가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가?” 가족들이 그림 밑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도록 한다.

2. 본문에서 말하는 각각의 다리들을 묘사하는 물건이나 그림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본다. 각각의 다리들에 관한 문슨 회장님의 생각을 나누고, 각 다리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축복했는지 간증한다.

3. 본문에서 인용한 시를 소리 내어 읽는다.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다리를 짓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부탁한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지으신 세 가지 다리를 열거한 다음, 이 다리들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언급함으로써 끝맺는다.

때가 되자 그 여행은 십자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견디기 힘든 길을 가시면서 너무나 큰 고통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게서 이 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¹⁵

마침내 예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¹⁶

이러한 사건들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더불어, 순종의 다리, 봉사의 다리, 기도의 다리를 엮는 마지막 다리를 완성시켰습니다.

다리를 짓는 분인 예수께서는 우리가 사망이라 부르는 광활한 협곡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¹⁷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인류는 그분께서 지으신 다리를 건너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리를 짓는 사람”이란 시를 이렇게 고쳐서 전해 드리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깊고 넓은 협곡을 건넌건만
왜 이 밤에 다리를 짓는단 말인가?
“오늘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이 길을 지나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일세
내겐 아무것도 아닌 이 협곡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겐 위험이 될 수도 있다네
그들 또한 땅저미 속에 건너야 하니
좋은 친구여, 나는 그들을 위해 다리를 짓는다네”

우리 모두 구주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지으신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지혜를 얻고 그것을 건너고자 결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

주

- 1. In James Dalton Morrison, 편., Masterpieces of Religious Verse(1948년), 342쪽.
- 2. 마태복음 1:21.
- 3. 누가복음 2:40.
- 4. 사도행전 10:38.
- 5. 마태복음 11:28~30.
- 6. 마태복음 4:4.
- 7. 마태복음 4:7.
- 8. 마태복음 4:10.
- 9. 고린도전서 10:13.
- 10. Duke University 졸업식 연설, 1987년 5월 10일.
- 11. 마태복음 25:34~40.
- 12. Richard Evans' Quote Book(1971년), 51쪽.
- 13. 교리와 성약 19:38.
- 14. 누가복음 22:39~44.
- 15. 누가복음 23:34.
- 16. 요한복음 19:30.
- 17. 고린도전서 15:22.

가장 낮은 지도자라니?

이제 막 집사가 된 한 청년이 감독인 내게 구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누가복음 9:48)라고 하셨을 때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가르쳐 주었다.

카를로스 월머 멘도사 바스케스

우 리 와드에는 새로운 집사 정원회 회장이 필요했다. 감독단 모임에 모인 나의 보좌들과 나는 이 부름과 그 밖의 부름에 대한 주님의 승인을 구하기 위해 언제나처럼 무릎을 꿇었다.

영의 확인을 느낀 나는 최근 12세가 되어 이미 집사 정원회 서기로 봉사하고 있는 빅토르 레오나르도 히메네스 곤잘레스 형제와 접견할 시간을 정했다.

접견을 하면서 나는 빅토르에게 현재 그의 부름과 그의 느낌에 대해 질문했다.

“걱정돼요, 감독님, 전 정말 걱정돼요.”

“왜 걱정이 되니?”

“저는 집사들이 모두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오는 길에 니콜라스랑 안소니네 집에 가서 그 애들을 깨운 다음 지미랑 루이스도 데려오려고 그 애들 집으로 갔어요. 저는 정말 걱정돼요, 감독님.”

나는 그가 말하는 내용, 그리고 12세 된 집사 정원회 서기가 정원회의 다른 회원들에 대해 그토록 걱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저는 봉사하기 위해 이곳에 있고, 잘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가장 낮은 지도자 중 하나예요.”라고 그는 이어 말했다.

“가장 낮은 지도자라니?”

“저는 서기거든요. 회장도 아니고 보좌도 아니에요. 저는 서기니까 가장 낮은 지도자 중 하나죠. 하지만 집사들이 여기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제가 데리러 가야 해요. 그 아이들은 여기 있어야 해요.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데리러 가야 해요, 감독님!”

글썽거리던 내 눈물은 결국 내 뺨 위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감정에 북받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가 왜 감독 부름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해 주는구나. 그건 베냐민 왕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 걱정하고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거였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거란다. 너는 가장 낮은 지도자가 아니야. 봉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교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란다.”

이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아빠한테 배운 게 바로 그거예요. 감독님이 우시는 걸 보니까 예전에 아빠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책임이 주어지면 그 일을 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

그 날의 눈물은 나의 영혼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주었고, 그 청년의 말은 나의 기억을 새롭게 해 주었다. 그가 정원회 회원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며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얼마나 크나큰 가치를 갖고 있는지 떠올렸다.

나는 빅토르에게 집사 정원회 회장의 부름을 주었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제 저는 정말로 열심히 봉사할 거예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감독님.”

시간이 흐른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이 접견을 떠올리면 다시 눈에 눈물이 고인다. 나는 이 청년이 가진 신성한 잠재력을 알고 있다. 그는 미래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히 알고 있다. ■



**어떤 나이에도
위대한 영혼**

“하늘에서 위대한 영혼이 되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서 위대한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연령대에서 의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탁월함과 근면에서, 친절함과 순종과 모범에서 우리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회장이 그의 영역에서 지도자가 되는 것만큼 집사 정원회 회장이 그의 영역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직 장군들만 충실하다면 그 어떤 나라도 최강의 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칠십인 정원회의 스티링 더블류 실 장로 (1903~1994년),
“A Personal Observation: The Problem Is Always the Same”,
Ensign, 1973년 3월호, 36쪽.

A photograph of a stream with several large, rectangular stepping stones placed across it. The water is clear and greenish-brown. In the background, there are green plants and more stones.

여 러분이 강가에
서 있고, 강
건너

맞은편에는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강을
건너려면 징검다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세움

고원용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저는 한국의 어느 사랑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십대 시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제 개종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겨울 방학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학교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를 하던 친구가 저에게 교회에 같이 가 보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냐고 물었고, 친구는 그 교회가 학교 근처에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무척 재미있고 여학생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열여섯 살이었고, 친구의 말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는 가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몇 년 간 장로 교회에 다녔었고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토요일 활동 모임에 참석했는데, 모두들 다가와서 제게 인사하며 반겨 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어린 남학생을 그토록 친절히 환영해 주었던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날에도 저는 교회에 갔고 선교사를 소개 받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제게 기본적인 복음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한 복음의 회복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공과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으며

저는 영원한 진보와 구원의 계획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 지상에서 존재하는 이유와 죽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 자주 생각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 나머지는 구주께서 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저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두 달 후 저는 침례와 확인을 받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부모님은 불교 신자셨지만 저를 믿어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먼저 여쭙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고 선교사들에게 낮에 우리 집에 와 달라고 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저는 어머니께 외국인들이 와서 뭔가를 물어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냥 “예”라고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왔을 때 어머니는 두 명의 잘 생긴 미국인들이 왔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이 한국말을 무척 잘했고, 정말 좋은 인상을 받아서 “예”라고 대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에 들어오기 위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성약에 기반한 삶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성약을 맺습니다.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 나머지는 구주께서 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저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성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약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맺은 성약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와 맺으신 성약에 충실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하거나 청남들의 경우 신권을 받는 것처럼 살아가는 동안 다른 성약들도 맺고 또한 그 성약들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성약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맺은 성약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와 맺으신 성약에 충실하실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를 세우고, 여러분이 맺는 성약을 이해하고, 희생이 요구될 경우에도 그 성약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실하고 영원한 관점을 지닐 때 주님께서는 훗날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 동안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시절 저는 일요일에는 공부를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토요일 자정까지 공부를 하고는 어머니께 월요일 아침

일찍 깨워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식일을 기록하게 지켰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이 일요일에 하루 종일 공부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약간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은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월요일에 시험이 있어도 저는 일요일에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할 날이 하루 적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주의를 집중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더욱 잘 활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최상위권 학생 중 한 명이 되었고, 한국에서 가장 명성 있는 대학 중 한 곳에 합격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복음 원리에 초점을 둔다면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으며, 결국 우리는 주님의 지지와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중 하나는 교리와 성약 4편 5절입니다. 이 구절은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눈”을 말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저는 늘 제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는지 자문하곤 합니다.

저는 28년 동안 한국 IBM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스테이크 집행 서기, 스테이크 고등평의원, 스테이크 회장, 지역 대표, 지역 칠십인 등 많은 교회 직책에서 봉사했습니다. 저는 항상 가족, 직장, 교회 부름,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한 시간에 있어 우선순위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항상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대표와 지역 칠십인으로서 저는 매년 두 번씩 연차 대회를 위해 솔트레이크에 가야 했는데, 직장에서 중역이었던 저에게 일주일 이상 사무실을 비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트레이크에 꼭 가고자 했으며, 저희 회사의 회장님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에 제가 잘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믿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세울 때 우리는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믿음을 굽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이나 성약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으며 많은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것을 지킬 때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은 우리의 희생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징검다리

여러분이 강가에 서 있고, 강 건너 맞은편에는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강을 건너려면 징검다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교 사업을 한 후, 성전에서 결혼하고, 가족을 갖겠다고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위해 준비할 때 여러분은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국 서울 성전 건축이 발표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기뻐했습니다. 성전 없이는 우리의 복음 생활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던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지만 성전에서 오는 축복은 사람들의 간증과 신앙의 기초를 더욱 탄탄히 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의식에 참석할 때, 그들은 복음에 더욱더 헌신하게 되며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는 징검다리와 같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러한 목표는 여러분을 도와 주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성약에 충실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가치 있게 되고 축복 받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

리하이는 이곳에 있었는가?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교회 잡지부

몰 문경은 리하이와 그의 가족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의 집을 떠나 광야를 여행하면서 겪은 시련과 승리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것을 읽을 때 우리는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들이 지나간 길을 정확히 추적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리하이와 그의 가족이 대략 어떤 지역을 여행했는지 알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겪은 일에 대해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지역과 리하이의 가족들이 처했던 상황을 좀 더 명확히 알려 준다.¹

지 중 해

예루살렘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레뮤엘의 골짜기와
레이만의 강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

수단

홍해

에리트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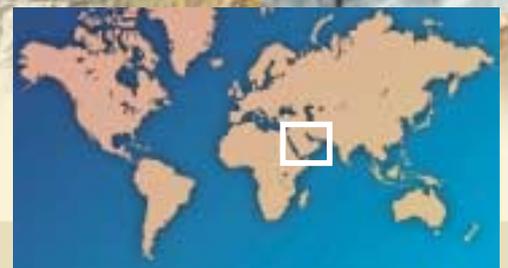
네이훔

예멘

아라비아 해

주

1. 본 기사에 담긴 정보는 Neal A. Maxwell Institute for Religious Scholarship(www.maxwellinstitute.byu.edu 참조)에서 출판한 다음 출처에서 나온 것이다.
 - Journal of Book of Mormon Studies, vol. 15, no. 2(2006년).
 - S. Kent Brown and Peter Johnson, eds., Journey of Faith: From Jerusalem to the Promised Land(2006년).
 - Journey of Faith(DVD, 2005년).



리하이 가족은 예루살렘을 떠난 후 그들이 “레무엘의 골짜기”(니파이전서 2:14)라 이름지은 곳에 멈추었다. 그곳은 홍해의 동북쪽 끝에서 사흘 거리에 있었다. (니파이전서 2:5~6 참조) 골짜기는 리하이가 레이맨이라 칭한 “끊임없이 ... 흘러”드는 “물이 흐르는 강 옆에 있”었다.(니파이전서 2:6~9) 리하이는 레무엘의 골짜기가 “굳건하고 변하지 않으며, 흔들림 없”다고 했다.(니파이전서 2:10)



위와 아래: 타입 알이즘이라 불리는 와디[역주: 와디(wadi): 건조 지역에서 평소에는 마른 골짜기이다]가 큰비가 내리면 홍수가 되어 물이 흐르는 강은 이 지역에 흔하며 오늘날 그 지역에는 일년 내내 흐르는 유일한 강이 있다. 이 협곡의 단단한 화강암 벽은 매우 인상적이며, 여름 기온이 평균 섭씨 43도를 웃도는 이 지역에서 충분한 그늘을 제공해 준다.

위: 레이맨의 강은 홍해로 흘러들어갔다.(니파이전서 2:8 참조) 와디 타입 알이즘이 홍해를 만나는 곳이 어디인지 여기에 나와 있다.



리하이의 가족은 계속해서 여행했고 “여러 날 동안” “처음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여행하였”다.(니파이전서 16:33) 그런 후 이스마엘이 죽어 “네이흠이라 하는 곳에 묻”혔다.(34절) 이곳에 묘사된 곳은 이들이 여행했던 대략적인 지역이며 오랜 세월 동안 네이흠이라는 이름과 관련해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다.

오른쪽: 최근 몇 년 동안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돌제단을 발견했다. 돌제단에는 네이흠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문자를 확대한 사진 참조) 리하이가 살았던 기원전 6세기 또는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도: 마운틴 하이 맵스, 별도로 표기된 것 제외; 왼쪽 삽화: 조셉 브리카; 삽입된 지도: 제리 톰슨; 사진 촬영: 저스틴 앤드류스, 워런 예스턴, 에스 켄트 브라운, 킴 해치, 데이비드 리슨비, 조지 포터, 별도로 표기된 것 제외



물몬경의 증인

“성신의 권능은 ... 언제나 물몬경이 참되다는 증거의 주된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증거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 아무리 명백한 증거도, 아무리 능숙하게 준비된 논쟁도 성신의 권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자연 현상의 부차적인 원인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지지하는 부차적인 증거 역시 매우 중요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칠십인 정원회의 비 에이치 로버츠 장로(1857~1933년),
New Witnesses for God, 3 vols.(1909년), 2:vii~viii.



이 절벽에는 꿀벌집이 많이 있다.



리하이의 가족이 따라갔던 정확한 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들은 네이훔과 풍요 사이의 사막을 여행하면서 이러한 모래 황무지를 가로질러 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 시기의 여행이 특히 힘들었을 것이다.



네이훙을 떠난 후 리하이의 가족은 “그때부터는 거의 동쪽으로 여행하였[다]. 또 [그들은] 광야에서 많은 고난을 헤치며 여행해 나아갔다”(니파이전서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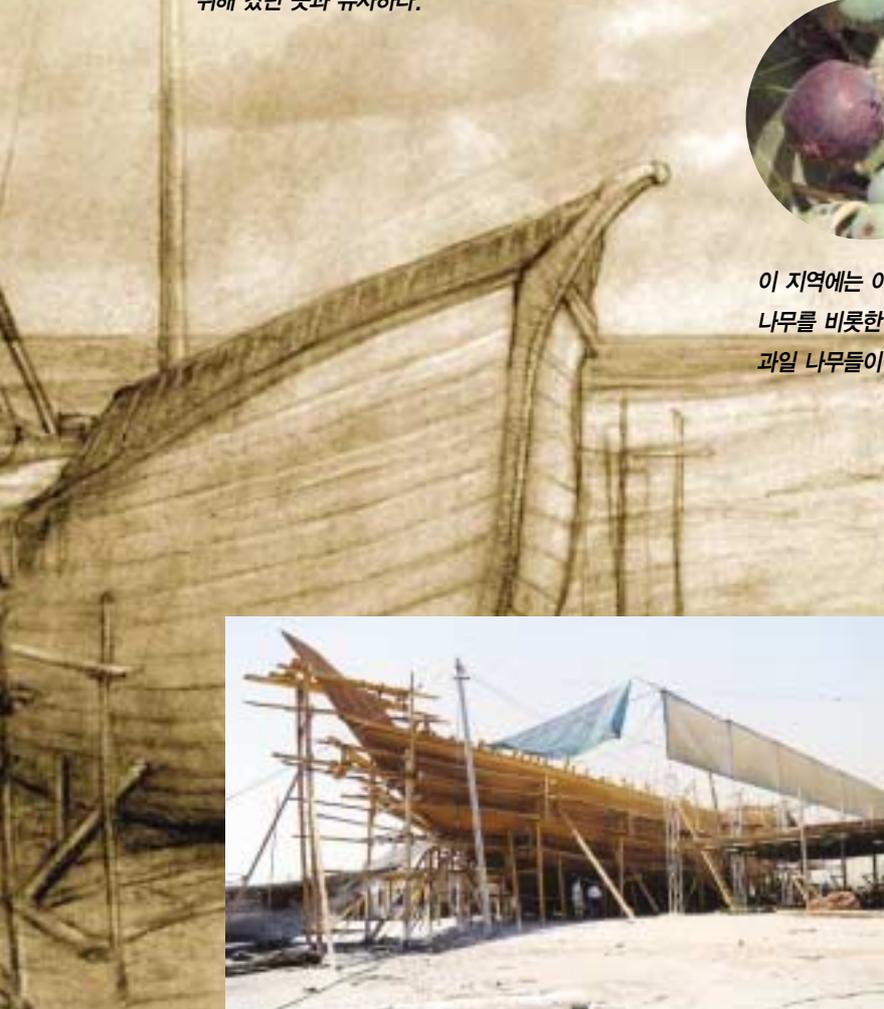
동쪽을 향해 여행하며 리하이의 가족은 아라비아 반도의 동남쪽 해안에 다다랐을 것이다. 그 해안선 지역의 일부가 여기에 나타나 있다. 그들이 불모지를 지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과 또한 들꿀이 풍성”한(니파이전서 17:5) 그곳을 풍요라 칭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풍요에서 니파이는 “자주 산으로 들어갔으며, 주께 자주 기도하였”다.(니파이전서 18:3) 여기 있는 산꼭대기는 니파이가 주님께 기도드리고 지시를 받기 위해 갔던 곳과 유사하다.



아라비아 반도의 동남 해안선에 걸쳐져 있는 몇몇 지역에는 식물이 자라는 소규모 지대가 있으며, 이러한 곳들은 주변 사막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는 아직도 무화과 나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과일 나무들이 자란다.



이 지역 현대 조선술의 예. 풍요는 니파이가 “바위에서 녹여 낸 광석으로”(니파이전서 17:16) 만든 도구를 사용하여 배를 지은 곳이다. 그 배는 “정교한 솜씨로 재목을”(니파이전서 18:1) 다듬어 만든 것이다. 이 지역에는 배를 짓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많은 나무뿐 아니라 철광석 광산도 두 군데나 있다.

왼쪽의 권 복제품 사진 촬영: 웬든 시 앤더슨; 배 삽화: 조셉 브리거; 삽입물: 밥 사진 촬영: 이요초카 © FOTOLIA; 니파이의 시현의 일부: 클러크 켈리 프라이스; 무화과 나무 사진 촬영: 리처드 엘 더블류 클리브



몰몬경

구주의 평안을 전해 주는 위대한 도구

닐 엘 앤더슨 장로
철십인 회장단

20 04년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이 재헌납되기 전에 성전은 정부, 재계 및 학계의 많은 저명한 지도자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큰 존경을 받는 한 선출된 지도자와 함께 성전 내부를 걸으면서 저는 그가 극도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의 다 둘러보고 인봉실에 다다라셔야 저는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앤더슨 씨, 제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큰아들은 5년 전에 서른다섯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죽음이 다가오는 그 몇 달 동안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 아이는 초조해 했고 근심으로 가득했어요. 그의 가족, 자신의 인생,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아들의 상황을 알고 있던, 이 교회의 회원인 제 친구가 제게 몰몬경을 한 권 주었고 그 책을 아들에게 전해 주라고 권했습니다.

“그 책이 제 아들에게 미친 영향을 보는 것은 제게 기적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책을 탐독했고 여백에 메모와 생각들을 적었습니다. 그의 우려와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몰몬경을 읽으면서 그는 놀라운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책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이 아들에게 가져다준 평안에 대해 무척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평안이 거두어지리라고 오래

전부터 예언되었던 바로 그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요, 온 땅이 동요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기절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45:26) 우리는 국가 간의 대립뿐만이 아니라 정신 없이 바쁘고 무질서한 현대 도시들, 매체와 기술로 인한 혼란, 물질적 소유에 집착함, 경제적 안정에 대한 불확실성, 변화하는 가치관의 혼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구주의 말씀에 참으로 이끌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더 많은 평안을 원하십니까? 구주의 평안을 더 얻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시겠습니까?

몰몬경은 굶주린 영혼에 평안의 원천이 되며 구주의 평안을 전해 주는 위대한 책입니다. 몰몬경의 소개 부분은 몰몬경이 우리에게 “이 생에서 평화를 얻고 내세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행하여야 할 일”을 제시한다고 말합니다.

몰몬경이 영혼에 평안을 가져다주는 방법을 세는 것은 해변의 모래알을 세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방법 중 몇 가지에 대해 토론하며 여러분이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 보아 더 많은

우리가 단지 이 책에 기도하는 마음과 신앙으로 다가서기만 한다면 구주의 평안이 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몰

몰론경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합니다.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오는 평안

몰론경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합니다.]”(니파이후서 25:26) 몰론경에 나와 있는 구절 중 반 이상이 구주와 관련이 있거나 그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¹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종종 세계 곳곳의 시사 잡지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는가? 그는 실존 인물이었는가? 성경의 기록은 진짜인가?²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몰론은 “이것[몰론경]은 너희로 그것[성경]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몰론서 7:9)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1970년도 초에 유럽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을 때, 그리스도의 신성함이 그곳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토론을 시작할 때 대부분 배도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20년 후 제가 선교부 회장으로 유럽에 돌아갔을 때, 우리 가르침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의 인생을 바치시고 삼 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간증의 중요성은 유럽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해 계속 강화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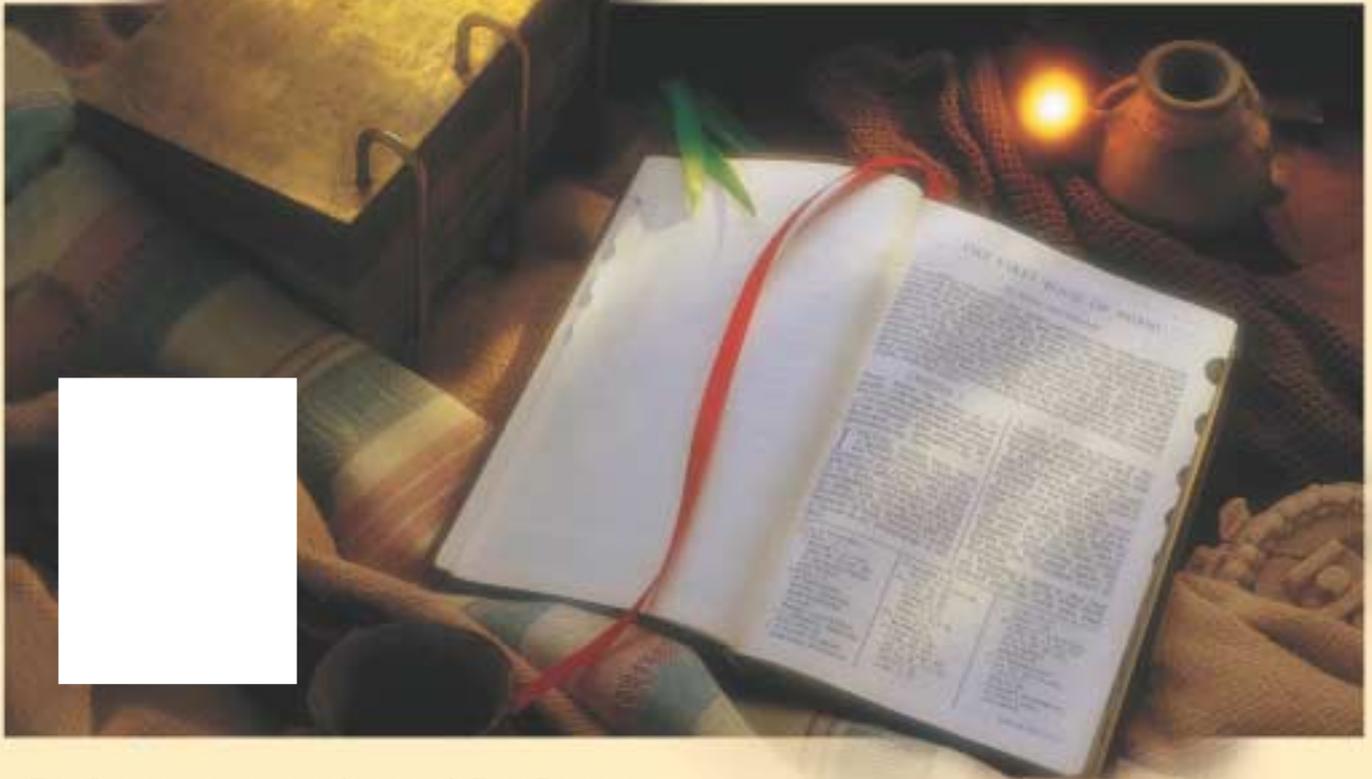
우리 시대와 이후 시대가 받는 축복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몰론경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한 평안을 가져다줍니다.

메시야가 오시기 전의 페이지들에서 우리는 그분의 목적, 그분의 약속, 그리고 그분의 치유의 권능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에 대한 예언과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미대륙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해 배웁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을 때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몰몬경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신성한 사명에 대한 물질적 증거입니다.

오리라고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라.”(제3니파이 11:10)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느낍니다. “내가 너희를 측은히 여김이요, 나의 심정이 자비로 충만함이라.”(제3니파이 17:7) “너희의 신앙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제 보라, 나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하시더라.”(제3니파이 17:20) 우리는 그분에게서 우리의 구속주이자 왕 중의 왕으로서의 위엄을 봅니다.

성신이 우리에게 증거한 이 참된 몰몬경에 나오는 증거는 형언할 수 없는 영적인 평안을 가져오며, 그분이 참으로 “부활이요 생명”(요한복음 11:25)이며 우리의 영원한 평안은 그분께 있음을 확신하게 해 줍니다.

회복에 대한 간증이 주는 평안

몰몬경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신성한 사명에 대한 물질적 증거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질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 책을 조셉 스미스가 썼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의 아내 에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조셉은 ... 몰몬경과 같은 책을 구술하기는커녕 조리 있게 잘 쓰여진 편지 한 장조차 쓰거나 받아쓸 수 없었다. 나는 일어났던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다른 누구에게나 그런 것처럼 그것은 내게도 놀라운 일이며 ‘기이한 일’이었다.”³

조셉 스미스 자신의 이야기(조셉 스미스-역사 1:29~60

참조) 외에 몰몬경의 근원에 대한 진실성을 설명한 기록은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판을 만져 본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판을 보여 준 것에 대해 기꺼이 간증했으며, 그들은 이 증언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몰몬경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간구한다면 그분께서는 성신의 권능으로 그 책이 참됨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리라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모로나이서 10:3~5 참조)

몰몬경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이시며, 조셉 스미스는 이 마지막 날에 그분의 계시자요 선지자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메시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지상에 세워진 주님의 왕국이라는 사실”도(몰몬경 소개) 확인해 줍니다.

저는 세계 곳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에 대한 간증을 가져다주는 몰몬경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을 수많은 언어로 들었고, 여러 다른 문화에서 이루어지는 헌신을 보았으며, 몰몬경이 가져다주는 평안의 지속성에 놀랐습니다. 그 경험은 참으로 “기이하고도 가장 기이한 일”입니다.(니파이후서 25:17)

제가 개종자의 삶에 미친 몰몬경의 권능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 프랑스에서 선교 사업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영국인이었던 동반자와 저는 오랫동안 가까호호를 했지만 큰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기품 있는 중년 여성이

영역 사진 촬영: 크리스티나 스미스, 모델: 포즈를 취함, 오른쪽 사진 촬영: 제드 에이 블리크, 상인물: 몰몬경을 번역하는 조셉 스미스, 델 파스



팔리 피 프랫은 말했습니다. “제가 읽는 동안 주님의 영이 제게 임했고, 저는 인간이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는 것처럼 분명히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이해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그녀에게 저희는 물론경 한 권을 전하고 이를 후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로 다시 갔을 때 그녀는 문을 열어 주었고, 저는 강한 영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론경을 읽었고 성신의 강한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느낀 기쁨과 평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종인 우리가 그녀에게 권유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추위가 매서웠던 2월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낡은 헛간에 간이 침례탕을 설치했습니다. 따뜻한 물에서 올라오는 김이 주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자매님이 교회 회원으로서 침례 받기 위해 간이 침례탕의 계단을 올라 물 속으로 들어가는 동안 지부의 겸손한 회원들이 간이 침례탕 주변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이 훌륭한 자매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팔리 피 프랫이 물론경을 처음 접했을 때의 경험에 대해 말씀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제가 읽는 동안 주님의 영이 제게 임했고, 저는 인간이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는 것처럼 분명히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이해했습니다.”⁴

이 간증이 주는 확신으로 우리는 교회 회원이 되며 우리가 맺은 성약의 약속과 책임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복음의 많은 원리에 대한 우리의 간증은 일상의 경험을 통해 커지지만, 복음과 신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아는 확신이 주는 평안을 처음 느끼게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물론경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교리에서 오는 평안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일자 선지자 엘마는 “칼이나 그들에게 일어났던 다른 어떠한 것보다, 백성들의 생각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엘마서 31:5)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의 참된

교리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평안을 가져다줍니다. 주님께서서는 물론경에 “나의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교리와 성약 27:5; 또한 42:12 참조) 실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경은 구원의 계획을 밝혀 주며 “영혼의 중대한 질문에 답해 줍니다.”⁵

물론경에 나와 있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은, 전쟁과 억압의 힘든 시기에, 선지자들의 말씀과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그리고 구주의 말씀을 통해 전해집니다. 물론경에는 한 가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사,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리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기 바라노라.”(모사이야서 15:1) 또한 다음과 같이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 하나님 앞에 가졌던 씨름에 대하여 너희에게 고하리라.”(이노스서 1:2) 우리의 죄를 뒤로하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라는 끊임없는 권고가 있습니다.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지독히 쓴 영혼의 고통과 고뇌 속에 있었고,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어 자비를 구할 때까지, 내가 내 죄 사함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그에게 부르짖었고 내 영혼에 평안을 찾았느니라.”(엘마서 38:8) 또한 구주의 위안과 평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 만일 너희가 내게로 오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로다. 보라, 나의 자비의 팔이 너희를 향하여 펼쳐져 있나니, 누구든지 오는 그를 내가 영접할 터인즉.”(제3니파이 9:13~14)

물론경은 그 이야기와 간증을 우리 앞에 조용히 펼쳐 보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조용히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성약을 맺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때, 우리는 그분의 속죄의 권능과 확신을 주는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인생의 어려움과 낙담에 직면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느 사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는 경전을 탐구합니다.”⁶

이것이 물문경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리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가족이 주는 평안

삶의 동요와 분주함, 불확실성에 둘러싸인 우리의 가족들은 평안을 갈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피난의 장소, 평온의 장소, 진리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께서서는 우리가 물문경을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저 없이 저는 … 더욱 충만히 주님의 영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겠다는 더욱 확고한 결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더욱 강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⁷ 이러한 약속은 분명 우리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크나큰 평안에 대한 약속입니다.

물문경은 놀라운 영적 역사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여러 세기에 걸쳐 전해져 내려오면서 어려움과 전쟁을 통해 보호되고 보존되고 하나로 모아져 요약되었으며, 그런 후 수세기 동안 묻혀져 있다가 마침내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책에 모든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주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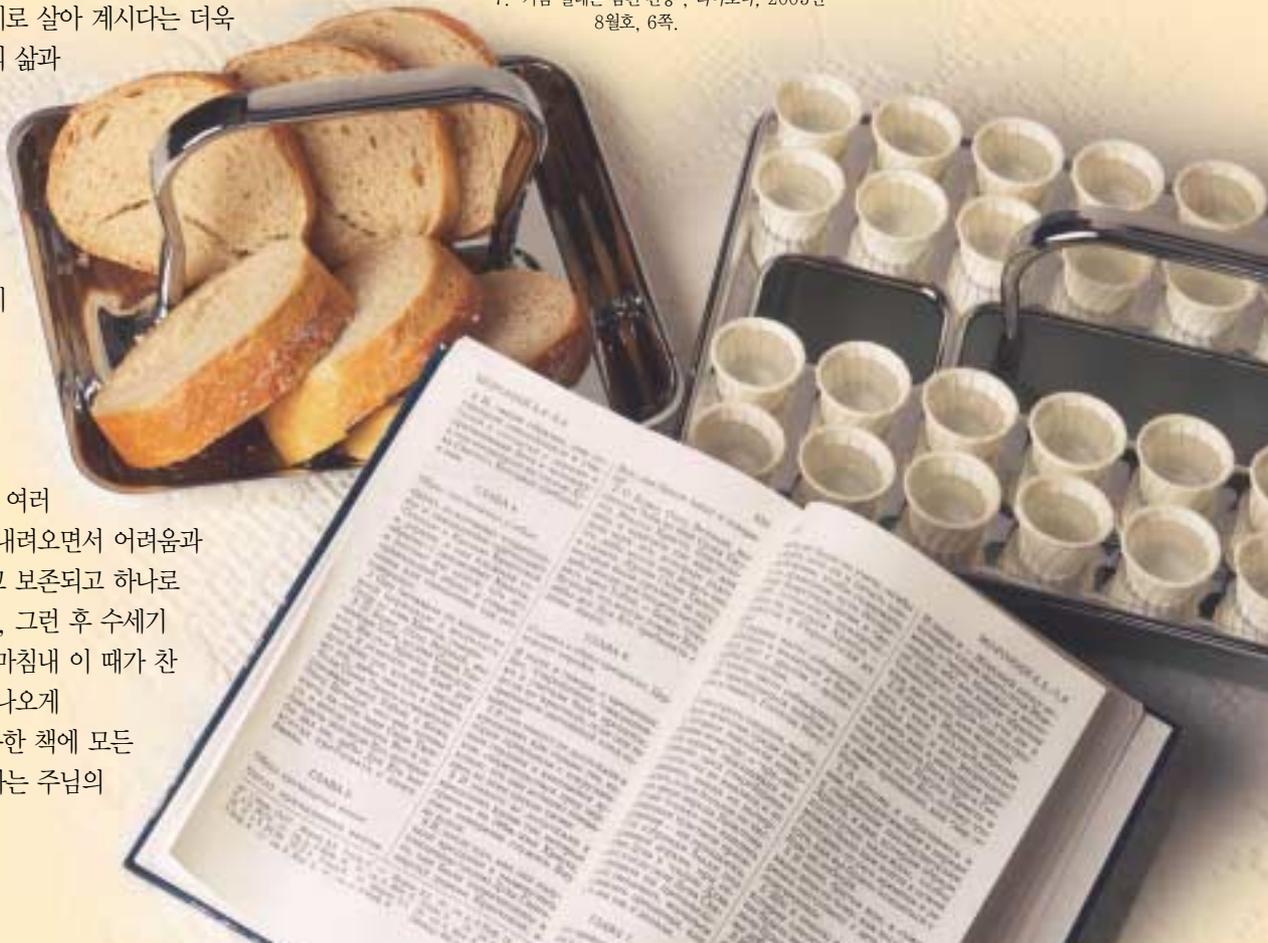
영이 그토록 충만하게 실려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위안과 평안의 약속은 물문경의 모든 장과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이 책에 기도하는 마음과 신앙으로 다가가기만 한다면 구주의 평안이 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

주

1. 에즈라 테프트 벤슨, “Come unto Christ”, *Ensign*, 1987년 11월호, 83쪽 참조.
2. 한 예로서 Laurie Goodstein, “Crypt Held Bodies of Jesus and Family, Film Says”, *New York Times*, 2007년 2월 27일자, sec. A, 10쪽; Jay Tolson, “The Gospel Truth”, *U.S. News & World Report*, 2006년 12월 18일자, 70~79쪽을 참조.
3.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1879년 10월 1일자, 290쪽 참조; 표준화된 철자법; Russell M. Nelson, “A Treasured Testament”, 또한 *Ensign*, 1993년 7월호, 62~63쪽 참조.
4. *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ed. Parley P. Pratt Jr. (1938년), 37쪽.
5. Ezra Taft Benson, “Flooding the Earth with the Book of Mormon”, *Ensign*, 1988년 11월호, 5쪽 참조.
6. 로버트 디 헤일즈, “거룩한 경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권능”,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26~27쪽.
7. “기슴 설레는 참된 간증”, *리아호나*, 2005년 8월호, 6쪽.

우 리가 주님과
성약을 맺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때 우리는
그분의 속죄의 권능과
확신을 주는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언어로 된 책

듀에인 이 하이아트

푸 에르토리코의 클라라 레티시아 크루즈 카노 자매의 몰몬경 사랑은 네 살 때부터 시작되었다. 매일 밤 가졌던 가족 경전 공부 시간에 오빠에게 입을 차레가 오는 것을 보며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클라라는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가족들처럼 읽게 되었다.

열두 살이 된 클라라는 새로운 도전에 임했다. 모국어인 스페인어로 읽는 대신 영어로 몰몬경을 읽는 것이었다. 열네 살 때에는 프랑스어로, 열다섯 살 때에는 포르투갈어로, 열여섯 살 때에는 이탈리아어로 읽었다.

2005년 8월,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후기 성도들에게 몰몬경을 읽거나 다시 읽으라고 권고했을 때 클라라는 이미 독일어로 읽고 있는 중이었다.

“좀 어렵지만 저는 해낼 거예요.”라고 클라라는 말했다.

다양한 언어로 읽으면서 클라라의 어휘력은 더욱 풍부해졌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에서 찾아 봐요. 사전 찾는 일은 금방 지치기 때문에 아예 단어를 외워 버려요.” 언어 공부는 또한 학업에도 도움이 되었다. 열일곱 살이었던 지난 해, 클라라는 푸에르토리코의 전 공립학교 학생들 중에서 일등으로 졸업했다.

클라라는 여러 언어를 공부하면서 몇 가지 보석을 캐냈다. 그녀의 중간 이름인 레티시아가 이탈리아어로 ‘기쁨’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니파이후서 1:21; 8:3 참조)

다른 몇몇 사람들처럼 클라라도 여러 언어로 된 몰몬경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읽을 수 없는 몰몬경은 갖고 있지 않기로 했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것은 그녀가 다음에 도전할 또 다른 언어로 된 책이 책꽂이에 꽂혀 있음을 의미한다. 그녀의 감독인 엑토르 알바레스 형제는 그녀가 그의 집에 있는 몰몬경 한 권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모습을 보고 그 책을 그녀에게 주었다. 이제 그녀는 단지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알파벳을 배울 기회를 스스로 갖게 되었다. 그 책은 러시아어로 되어 있다. ■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가르쳐 주셨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에게 필요한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지상에 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스펜서 더블류 김블

회장(1895~1985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전세와 불멸 사이의 중간 상태인 필멸의 생활을 경험하도록 이 지상에 보내졌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부모인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금단의 열매를 따먹어서 필멸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과 그들의 모든 후손은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육적인 죽음은 몸과 영이 분리되는 것이며, 영적인 죽음은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의 원래의 상태를 다시 찾으려면, 이 불순종에 대한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기 위해 구속주를 예비하셨으며, 부활을 통해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영과 육이 재결합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육적인 사망을 이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도록 택함을 받으셨습니다.”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 성도의 벗, 1978년 10월호, 3쪽)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1899~1994년): 아담과 이브를 지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에게 그의 면전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타락된 상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구주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에 대해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아담과 그의 자손들은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로 들어서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에 들어서는 것은 ... 주님의 집을 통해서만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성전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벗, 1986년 4~5월호, 1쪽)

줄리 비 벡,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하나님의 영의 딸로서 여성은 ‘영의 세계에서 첫 교훈을 받았으며’ 지상에 ‘나올 수 있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138:56) 그들은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 ‘다 기뻐 소리를 질렀[던]’ (욥기 38:7) ‘고귀하고 위대한 영들’ (교리와 성약 138:55)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이 지상에서 ‘시험’을 받을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서 3:25 참조) 그들은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의로운 남성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여성의 역할은 지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여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지상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성은 다가올 세상에서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그녀의] 마음도 있[기]”(마태복음 6:21) 때문입니다. 모성을 발전시킴으로써 모든 소녀와 여성은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신성하고 영원한 사명을 위해 준비합니다 ...”

“경험을 통해 저는 참된 모성을 가진 몇몇 분이 이 생애에서 자신의 자녀를 키울 기회를 갖지 못하는 여성들 대열에 속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만사는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 지며 자신들이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다[는]’ (교리와 성약 64:23~33) 점을 알고 있습니다.(“모성”,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76쪽) ■



우리 가족을 변화시킨 상호부조회 공과

사방에서 공격하는 악의 영향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간단하고도 기적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는가?

익명

나는 중학교 일학년 때부터 우리 아들 제이콥(가명)의 태도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주목했다. 제이콥은 착한 아이였지만 점점 무례해졌고 때로는 반항적이기도 했다. 그는 텔레비전과 비디오게임, 인터넷에 집착했다. 숙제를 하거나 방을 깨끗이 치우거나 집안일을 돕는 것은 계속해서 거부했다. 큰 아이들이 십대가 되면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 왔지만 이번에는 좀 더 심각한 듯 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나는 어떤 아이들은 자라면서 교회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우리 막내 아들과 가족 모두를 세상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자 간절히 기도했다.

11월의 어느 일요일, 상호부조회 반 뒤쪽에 앉아 있던 나는 분명 기적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다.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인 랜들 자매는 공과 주제가 경전 공부라고 말했고, 나는 우리 가족을 떠올리면서 침울한 죄책감을 느꼈다. “또 경전 공부에 대한 공과야.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나의 남편은 언제나 가족을 극진히 사랑하는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이지만, 가족 경전 공부는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고 가정의 밤을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가족 경전 공부를 하자고 할 때마다 그는 그것을 고려하기조차 거부했다. 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재우기 전에 한 명 한 명과 함께

경전을 읽었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이콥과 경전을 읽으려고 방에 들어가면 “지금은 좀 그래요. 너무 피곤해요.[또는 바빠요 등등, 그에게는 변명이 수도 없이 많았다.] 혼자서 읽을게요.”라는 대답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우리가 경전을 함께 읽지 않아서 다음날 아침 물어보면 아이는 늘 “잊어버렸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다른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경전 공부를 어디까지 밀어붙여야 하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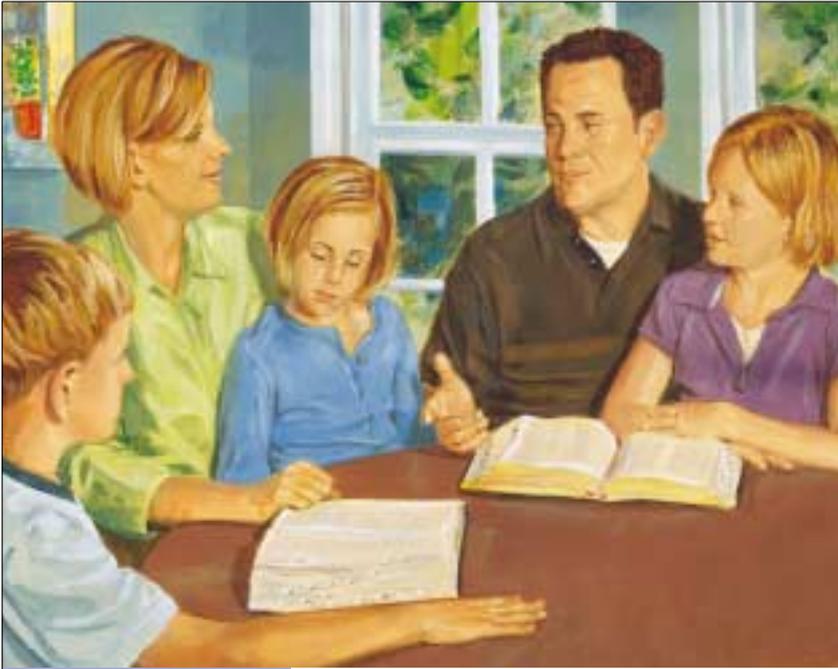
랜들 자매가 공과를 시작했을 때 나는 경전 공부를 참으로 좋아하는 “완벽한 가족”의 이야기를 또 듣게 될 거라 예상했다. 그러나 랜들 자매는 구약에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여행할 때 불뱀이 그들을 공격했던 것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에게 물려 죽었지요. 끔찍한 멸망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모세에게 뱀을 거두어들이고 그들을 고쳐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어요.”

갑자기 나는 우리 가족이 삶의 여정에서 후기의 독사라 할 수 있는 범죄, 마약, 외설물, 부도덕이라는 불뱀의 공격을 받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력감을 느꼈다.

랜들 자매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뱀(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그러나 가족 경전 공부를 하자고 할 때마다 그는 그것을 고려하지조차 거부했다. 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재우기 전에 한 명 한 명과 함께 경전을 읽었다.





새 해 첫날, 그는 매일의 경전 공부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훨씬 좋아진 우리 집 분위기에 놀랐다.

만들어 장대 위에 올리게 하셨다고 말했다. 그런 후 모세는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뱀에게 물린 사람은 뿔뿔을 보기만 하면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약속의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엘마는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심히 완악하게 되어서 보려고 아니한 자들이 많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하였느니라. 그들이 보려고 아니한 이유는 그것이 그들로 낫게 하리라고 믿지 아니한 까닭이라.”(엘마서 33:20)

랜들 자매는 우리 시대 불뱀은 다른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개인적으로, 또한 가족과 함께 매일 경전을 읽으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개인 및 가족 기도를 하고, 모임에 참석하면, 십일조를 내고, 회개하고, 성전에 참석하기에 합당하게 되고 가정의 밤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고침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처음에는 이 개념의 단순함이 우리를 일상의 유혹에서 보호하기에는 너무 쉬워 보였다. 그러나 랜들 자매가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나의 마음은 감명을 받았고 주님께서 그녀를 통해 내게 말씀하고 계심을 느꼈다. 나는 단지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오늘날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믿고 있던 것일까? 아니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 보기를 거부했던 것처럼

거부해온 것은 아닌가?

나는 가족 기도와 경전 공부를 통해 우리 가족을 강화시키겠다는 결심으로 교회 문을 나섰다. 그리고 남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몇 주 동안 계속 기도했다. 금식도 했다. 또한 특별 가정의 밤을 열어 저활동인 결혼한 아들과 그의 가족을 초대했다. 우리는 모세와 불뱀에 대해 공부했다. 마침내 어느 날 밤, 나는 남편에게 가족이 함께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겠는지 물었다. 새해 첫날, 그는 매일의 경전 공부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해지지는 않았지만, 나는 훨씬 좋아진 우리 집 분위기에 놀랐다. 싸움이 줄어들고 사랑의 영이 깃들었다. 나는 예전처럼 자주 화를 내거나 낙담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남편과 주님께 나 자신도 놀랄 줄 정도의 친밀감을 느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변화한 것은 제이콥의 태도였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가족 경전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상기시켜 주기 시작했고, 자신의 차례가 오면 기꺼이 읽었다.

나는 선지자를 따르고 그들의 약속에 의지하는 것의 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의 다음 말씀이 참되다는 간증을 얻었다. “부모가 바쁜 가족들을 모두 잠자리에서 끌어내어 함께 가족 기도를 드리고 경전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초인간적으로 노력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결국 함께 모였다 해도 항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견디어 낸다면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¹ ■

주

1. “풍요로운 가정 생활”, 성도의 빛, 1983년 7월호, 65쪽.

건강과 힘

여러분은 나태한 생활과 나쁜 식습관이 여러분의 육신을 약하게 하고 병에 걸리기 쉽게 만들며 일하고 즐길 수 있는 힘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이미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하고 영화로운 몸을 주시는 반면, 여러분의 몸에 사는 영은 여러분이 만든 그대로일 것입니다. (앨마서 34:34)

다음은 영적 건강과 힘을 키우기 위한 몇 가지

제한입니다.

식이 요법

- 영적 음식에 대한 입맛을 찾으십시오. 경전과 연차 대회 말씀, 교회 공과 및 세미나, 그리고 그 밖의 영적 음식을 계속 섭취하시면 그것은 여러분께 기쁨을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앨마서 32:28 참조)

- 조금씩 드시지 말고 많이 드십시오. 영적 음식은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 나쁜 음식은 제한하십시오. 간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영양가 있는 저녁 식사의 식욕이 떨어지듯이, 비디오게임, 인터넷, TV 등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면 영적 잔치를 위한 시간이

조금밖에, 또는 아예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상한 음식은 먹지 마십시오, 성신을 거스르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영에 독이 됩니다. 외설물, 노골적이거나 폭력적인 오락물, 그리고 불건전한 음악은 독과 다름없습니다.

- 회개하는 마음과, 신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취할 때 작은 빵 한 조각과 물 한 모금이 주는 영적 영양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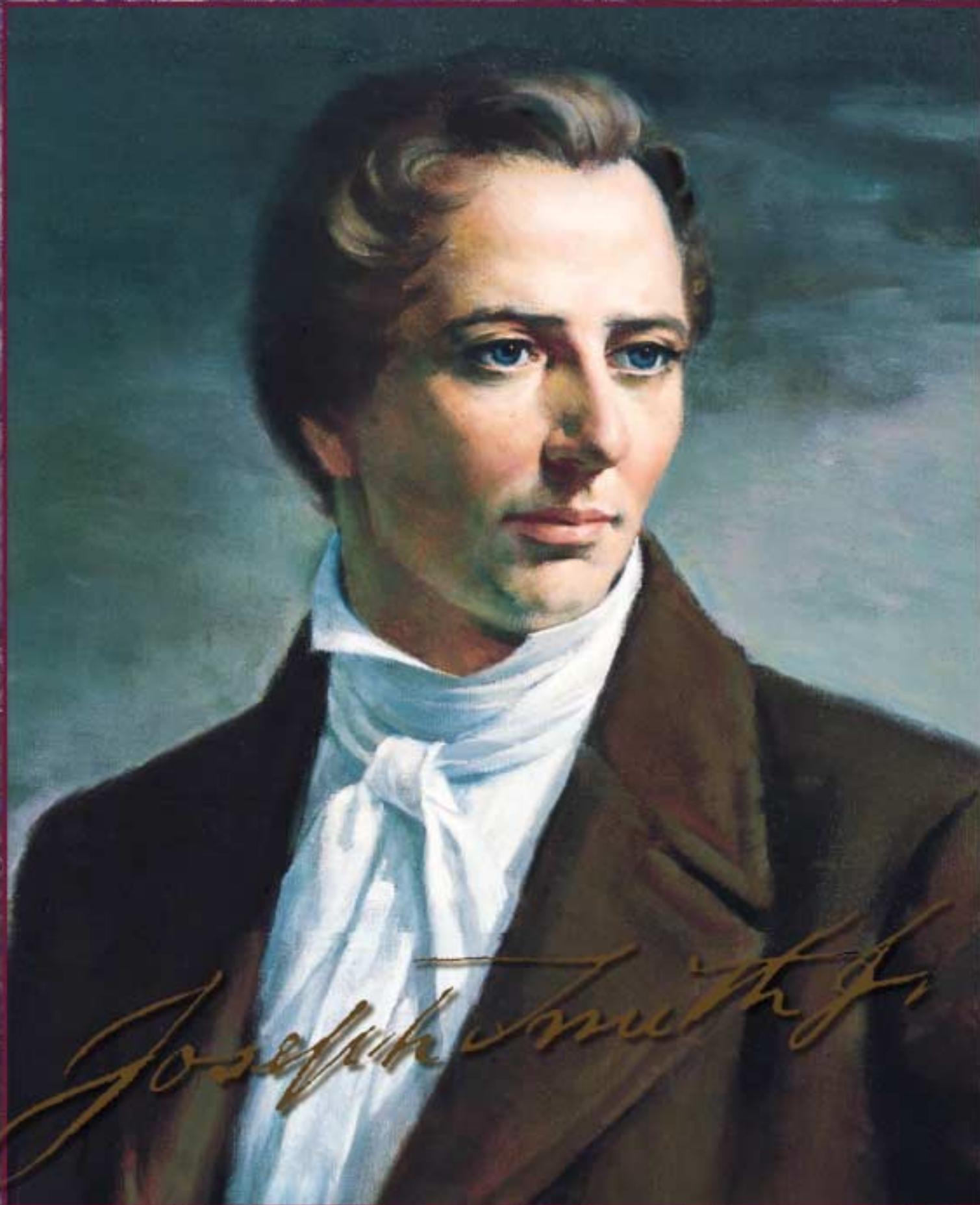
실천

- 봉사하고 친절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복돋워 주는 것은 훌륭한 실천입니다.

- 하루에 최소한 두 번 무릎을 꿇습니다. 규칙적인 기도는 영적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 자주 간증합니다. 간증은 규칙적으로 사용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근육과 같습니다. ■





선지자 조셉 스미스, 비범한 교사

제이 이 젠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교과 과정부 집행 책임자

카테지 감옥에서의 충격에 의한 네 군데의 상처가 회복되는 동안, 존 테일러 회장(1808~1887년)은 순교한 그의 사랑하는 선지자에 대한 가득찬 경외심으로 다음과 같은 영감어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주의 선지자요 선견자인 조셉 스미스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세상에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교리와 성약 135:3)

최근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셨습니다. “조셉의 인생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난 속에서 태어나 역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이곳 저곳으로 쫓겨 다니고, 부당한 고소를 당했으며, 또한 불법적으로 투옥당했습니다. 그는 38세의 나이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 20년이란 짧은 세월 동안 그는 다른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도 하지 못할 일을 해냈습니다.”¹

조셉 스미스의 많은 업적 중에는 우리 후기 성도의 교리적 이해를 위한 토대를 세운 것이 포함됩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너를 통하여 나의 말을 가지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5:10)

조셉은 정규 교육을 얼마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혜와 지성을 갖춘 선지자이자 영감에 의한 통찰력을 지닌 비범한 교사로 만드셨습니다. 그의 가르침 중 많은 부분이 이제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에 수록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새 책은 전 세계 곳곳의 회원들에게 이 회복의 선지자와 그의 가르침에 대해 배울 유례 없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이자 교회 회장으로서 수백 차례에 걸쳐 영적인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중 약 50여 가지만 기록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전문가와 자원 봉사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전한 것으로 알려진 말씀을 검토하고 하나로 모으기 위해 역사 기록을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주의 깊은 연구와 확증 후 편찬되었습니다. 그 후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이 기록을 승인했습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에 나온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거쳤습니다. 본래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광범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시대에 말씀이 기록된 방식은 이후의 교회 회장들의 말씀이 기록된 방식과는 매우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책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속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설교는 일반적으로 서기, 교회 지도자 및 다른 교회 회원들에 의해 보통 속도로 부정확하게 기록되었다. 조셉 스미스의 말씀 대부분은 사전에 준비된 원고 없이 즉흥적으로 전해졌으므로, 그가 말씀하는 것을 듣고 받아 적은 메모들이 설교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었다.”²

이 새로운 책에는 125가지 이상의 복음 주제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영적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색인은 선지자의 말씀을 주제별로 찾기 쉽게 해줄 것입니다. 각 장 끝에 있는 주석은 선지자의 말씀의 출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에 나와 있는 가르침과 사건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간증은 강화될 것입니다.

제공합니다. 또한 부록은 선지자의 가르침의 주요 출처인 *History of the Church*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출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2년 간 매월 둘째, 셋째 주 일요일에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의 복음 공부를 위한 지정 교재가 될 것입니다. 교과과정부의 집행 책임자로서 저는 이 책이 개인과 가족들이 즐겨 찾는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세 이상의 모든 교회 회원들은 이 책을 받게 됩니다. 이 책은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시리즈에 포함된 다른 책들과 나란히 개인 및 가족 복음 공부를 위한 필수 서적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스타일과 형식은 여타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시리즈와 같습니다. 이 시리즈의 다른 책들처럼 이 책 또한 배우고 가르치는 데 도움을 주는 제언이 담겨 있는 소개와 역사적 사건

요약, 선지자의 생애와 성역에 대한 에세이, 그리고 각 장 마지막에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조셉 스미스와 그가 선지자로서 전했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한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들은 또한 각 장에 나와 있는 시각 자료와 소개 자료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전에 단 한 번도 출판된 적이 없는

미술 작품을 포함하여 140점 이상의 사진과

그림, 삽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미술 작품은 선지자의 아버지의

침례(제7장),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난

엘리아(제26장), 성난 주 방위군들

사이에서 온화한 성품으로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선지자(제19장),

미주리 주 리치먼드의 감옥에서 몇몇

충실한 형제들과 사슬로 묶여 있던

조셉이 일어서서 상스러운 말을 쓰는

간수들을 꾸짖었던 감동적인 순간(제30장),

그리고 일리노이 주 커머스에서 일어났던

일라이저 포드햄의 기적적인 병

고침(제33장)과 같은 영감어린 순간들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시각 자료에 나와 있는

사건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간증은 강화될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각 장의 소개 부분은

선지자의 생애와 회복의 주요 사건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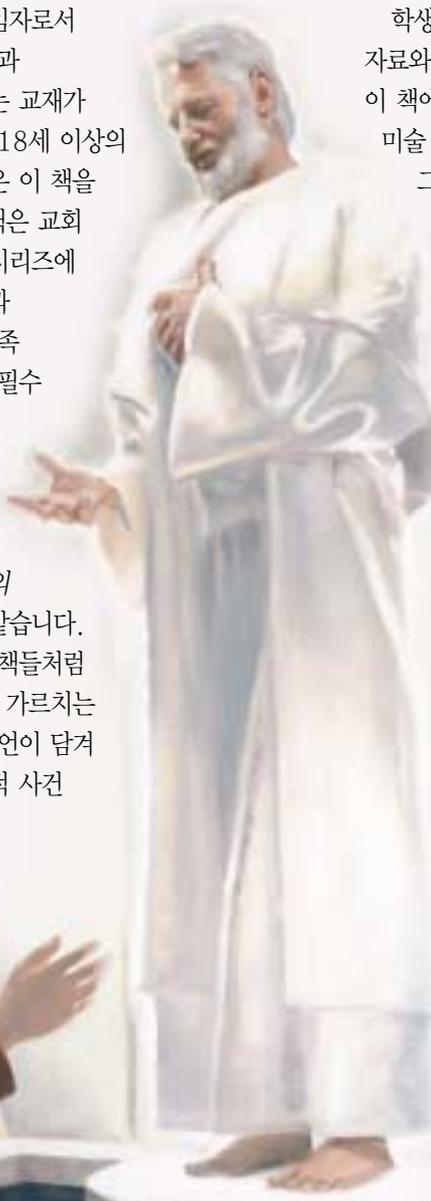
보여 줍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그의 역할,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적과의 만남에 대해 읽게

됩니다. 지도자로서의 성공과 박해로

인한 슬픔에 대해서도 읽게 됩니다.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난 엘리아, 다내벨 루이스, 내부에서 촬영하는 조셉 스미스, 폴 린

교사로서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탁월한 복음 교사였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배움에 대한 그의 갈망에 있었습니다. 그는 회복된 복음의 진리에 대해 설교하면서 몇 시간 동안이나 수천 명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브리검 영 회장(1801~1877년)은 영감으로 가르치는 선지자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조셉은 하늘을 들어 땅에 내려놓고, 땅을 들어 하늘에 올려놓으면서 하나님에 관한 기사를 분명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 여러분이 알기에도 조셉은 그런 분이 아닙니까? 조셉이 경전을 가지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곤 하지 않았습니까?”¹

팔리 피 프랫 장로(1807~1857년)는 선지자의 비범한 가르치는 능력이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서 수천 명에게 영향을 주었던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그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었으며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약 삼천 명 가량이 모였다. 리그돈 형제가 먼저 말씀을 했는데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복음에 대해 설교했다. 그가 설교를 끝냈을 때, 조셉 형제는 마치 울부짖으려는 사자처럼 일어났으며, 성신의 충만함을 입고 큰 권능으로 말씀하며, 자신이 보았던 시현과 누렸던 천사의 성역, 그리고 어떻게 물몬경의 판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간증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설교를 시작했다. ‘만일 하늘에서 온 것처럼 영광스러운 메시지와 이처럼 영광스러운 기록을 발견한 것에 대해 아무도 간증할 용기가 없다면, 저는 사람들에게 대한 공의와 정의로써 그 기록에 대해 간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제 간증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프랫 장로는 이어 말했다. “온 회중은 그가 말하는 진리와 권능, 그리고 그가 언급한 경이로운 일들에 놀라 마치 감전된 듯 했고 압도되었다. 잊을 수 없는 감동이 전해졌으며, 많은 영혼이 무리 안으로 모였다.”²

최소한 한 번 이상, 주님께서 사람들이 선지자가 가르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셨다. 아마사 포터는 1844년 4월, 나부 템플 근처에서 조셉 스미스의 설교를 듣고 있었다. 그 경험에 대해 포터 형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가 한 삼십여 분 동안 말씀을 했을 때 갑자기 강한 바람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먼지가 너무 심하게 일어서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서로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자리를 뜨자 조셉은 그들을 불러 세우고 그들이 바람이 그치고 비가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그 기도가 능하신 하나님께 상달되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바람과 비가 그치고 모든 것이 교묘한 여름 아침처럼 잔잔해졌습니다. 폭풍은 갈라지면서 북쪽과 남쪽 도시로 가 버렸으며, 우리는 멀리 있는 나무와 관목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았으나, 우리가 있었던 곳은 한 시간 가량 조용했습니다. 그 한 시간 동안, 선지자는 그때까지 전한 것 중 가장 위대한 설교 하나를 전했으며 그것은 죽은 자에 대한 중요한 설교였습니다.”³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후기 성도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기를 간절히 바랐으며,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토록 후하게 계시해 주신 것을 가르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1839년 6월, 일리노이 주 커머스에서 전한 말씀에서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이사도에게 알려 준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조셉에게 밝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약한 성도라도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한 바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⁴ 1843년 4월에 전한 또 하나의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으로 파도처럼 밀려들어오는 시현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해하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하루종일 기쁜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오! 여러분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들을 여러분 앞에 가져다줄 때 제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⁵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1997년), 345쪽.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년), 150쪽.
3. 가르침: 조셉 스미스, 494쪽.
4. 가르침: 조셉 스미스, 268쪽.
5. 가르침: 조셉 스미스, 520쪽.

우리가 그의 개인적인 경험을 읽고 깊이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회복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지식과 간증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책에 담긴 영감어린 가르침을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첫번째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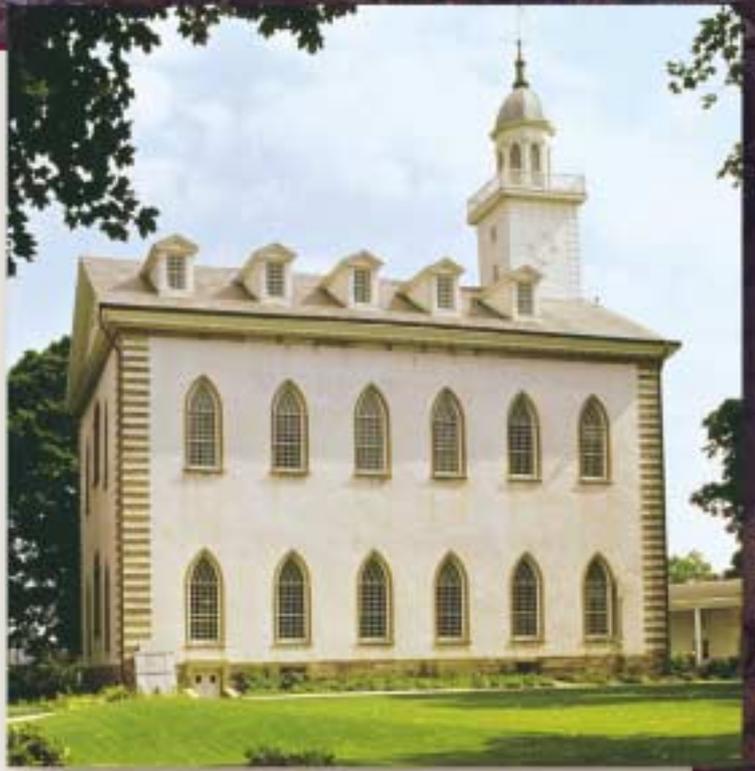
이 특별한 책의 첫 번째 장은 복음의 회복이 그러했듯이 첫번째 시현으로 시작합니다. 1820년, 14세의 소년이었던 조셉 스미스의 겸손한 기도는 수 세기 동안 지상을 덮었던 침묵의 휘장을 걷어냈습니다. 이는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었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조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실재성에 대한 직접적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가 저물어갈 무렵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분을 알고, 그분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³ 제1장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선지자의 기적적인 시현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설명을 공부하고 생각하게 해 줍니다.

물문경

여섯 개 장의 부분 부분을 통해, 이 책은 물문경이 빛 속으로 나아와 번역되고 인쇄된 경위를 다시 이야기해 줌으로써 물문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언적인 이 기록을 번역했던 경험에 대해 선지자는 훗날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나는 세상에서 이미 사라진 지식으로 만들어진 상형문자로부터 물문경을 번역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서 교육 받지 못한 한 젊은이가 새로운 계시를 갖고 홀로 선 채 18세기의 세상적인 지혜와 복합적인 무지에 대항해 싸워야 했습니다.”⁴ 이 책에 담긴 물문경의 출현이라는 역사적 기록은 경전, 회개, 기도, 개인적 계시, 그리고 교회의 조직 등의 주제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과 더불어 수록되어 있습니다.





새로 출판된 이 책은 자주 인용되는 선지자의 약속을 포함합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⁵ 우리는 몰몬경을 자주 읽고 그 책의 가르침을 생활에 적용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험난한 길을 가는 동안 하늘의 영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몰몬경과 몰몬경에 대해 조셉 스미스가 준 가르침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몰몬경이 19세기의 시골 소년 혹은 그 시대의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몰몬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고 이전에 살았던 제자들이 기록하고 하나로 편찬했으며 수 세기 동안 보존되어 위대한 선전자 조셉 스미스에 의해 번역된 기록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회복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부름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의 회복

이 새로운 책은 아론 및 멜기세덱 신권과 그 열쇠의 회복에 대해 간단히 말해 줍니다. 선지자는 침례 요한에게서 아론 신권의 권세와 열쇠를 받았던 것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우선 숲으로 가서 나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려 달라고 주님께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나는 천사침례 요한을 보았는데, 그는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나를 아론의 반차에 따라 제사로 성임하고, 이 신권의 열쇠를 소유하게 했습니다.”⁶ 몇 주 후,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타나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멜기세덱 신권과 그 열쇠를 부여했습니다. 이 기적적인 나타남이 있는 지 십 년 후에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해 또는 계시에 의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서 성임되어 하나님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인간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통한 구원을 집행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⁷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성한 임명을 받은 사자들을 보내시어 조셉 스미스에게 권세를 주셨으며, 선지자는 신권과 그 열쇠들을 통해 그 권세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여했다는 것을

겸손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부여와 성임의 사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언합니다.

성전 의식

제26장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1836년 봄, 성전을 짓기 위해 3년간 헌신하고 희생을 한 커틀랜드 성도들은 마침내 아름다운 성전, 곧 이 시대에 세워진 최초의 성전이 완성된 모습을 보았다.”⁸ 수백 명의 사람들이 헌납식을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가족들을 영원히 하나로 인봉해 주는 권능에 대해 가르친 것과 함께 그 헌납식에서 일어났던 영광스러운 영적 경험에 대해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1843년 6월에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가르쳤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실천할 때, 반드시 그러한 목적으로 지어진 장소나 집에서 집행해야 하는 특정한 의식과 원리가 있습니다.”⁹

1836년 이후로 120개 이상의 성전이 세워져 주님께 헌납되었습니다. 성전 의식을 통해 개인들은 엔다우먼트를 받고 가족들은 인봉되며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한 구원의 의식이 집행되고 성약이 맺어지며 사람들의 삶이 축복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한 주님의 사업으로 인해 가능해졌습니다.

계속되는 계시

제16장에는 계시와 살아 계신 선지자, 그리고 살아 계신

선지자를 거부하는 것에 따르는 결과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의 일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경전에 나와있는 대로 항상 직접적인 계시 위에 세워졌듯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역시 직접적인 계시 위에 세워졌습니다.”¹⁰

조셉 스미스의 시대 이후로도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도록 선지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을 통해 계시가 전해졌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종이나 그분의 교회, 또는 그분의 백성들을 홀로 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그분의 왕국을 관리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에게 신성한 인도를 내려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가족

가족의 중요성과 영원한 본질에 대한 선지자의 권고와 지혜는 제42장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팔리 피 프랫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아들과 딸의 아름다운 관계의 소중함을 가르쳐 준 사람은 바로 조셉 스미스였다.”¹¹ 선지자의 개인 일지에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던 그의 아버지에 대한 감동적인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간호했다. 아버지는 몹시 편찮으시다. 아침에 은밀히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좋아, 네 아버지는 살 것이니라.’ 나는 오늘 하루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버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아버지의 지지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아버지를 간호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다. 부모님은 오랜 연륜과 경험을 통해 가장 유익한 권고를 해 주신다.”¹²

모두가 접할 수 있는 자료

이 새로운 교회 출판물은 선교 사업, 순종, 사망, 역경, 화합, 지도력, 배도, 용서, 친구, 그리고 그 밖의 많은 복음 주제에 대한 선지자의 영감에 찬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세계 곳곳의 교회 회원들은 이 책을 통해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을 전례 없는 방법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많은

이 책을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

- 신권회 및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18세 이상의 모든 회원들이 이 새로운 교회 출판물을 한 권씩 받도록 해야 합니다.

- 우리 모두는 복음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수업 전에 각 장을 읽고 공부하며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토론 시간 동안 우리의 식견과 간증을 나누기 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소개 부분의 제언은 교사들이 다른 자료로 이 책을 뒷받침하기보다는 책의 내용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 부모와 자녀들은 책에 담긴 그림, 이야기, 인용문 및 질문을 활용함으로써 가정의 밤 공과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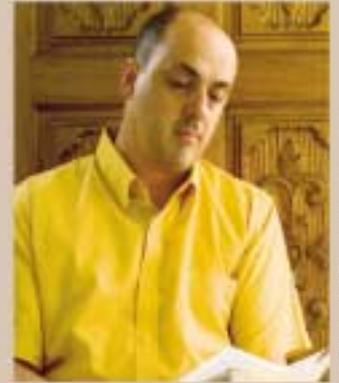


사진 촬영: 이스라엘 안테니스 비에이라, 모델: 표조를 취함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셉 스미스의 예언적인 말씀을 이토록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1820년 봄, 고독한 장소에 있었던 하나의 영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수백만의 무리가 되었습니다. 성신은 충실한 회원들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영혼에 주님께서 비범한 선지자와 교사로 만드신 한 겸손하고 평범해 보이는 소년에 대한 간증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새롭고 특별한 책에 담겨 있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름으로써 그 간증의 불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습니다. ■

주

1. “조셉 스미스 이세—하나님의 선지자, 위대한 종”, *리아호나*, 2005년 12월호, 2쪽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558쪽.
3. *가르침: 조셉 스미스*, 38쪽.
4. *가르침: 조셉 스미스*, 60쪽.
5. *가르침: 조셉 스미스*, 63쪽.
6. *가르침: 조셉 스미스*, 85쪽.
7. *가르침: 조셉 스미스*, 110쪽.
8. *가르침: 조셉 스미스*, 307쪽.
9. *가르침: 조셉 스미스*, 416쪽.
10. *가르침: 조셉 스미스*, 195쪽.
11. *가르침: 조셉 스미스*, 481쪽.
12. *가르침: 조셉 스미스*, 483쪽.

자존심 보다

아이린 유뱅크스

여느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부부도 결혼 생활 동안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는데, 그 중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있다. 지금은 무엇으로 인해 의견 충돌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도 않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서로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나는 그것이 전적으로 남편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그날,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남편이 미안하다고 말하기를 기다렸다. 정말로 그는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남편은 분명 내 마음을 몹시 상하게 했다. 나는 내 주장을 굽히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원칙이었다.

날이 저물어 감에 따라, 나는 그동안 기다린 것이 헛수고였음을 깨닫기 시작하였고, 결국 주님께 기도드리기로 했다. 나는 기도를 통해 남편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결혼 관계를 얼마나 해치고 있는지 깨닫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나는 남편이 영감을 받아 사과함으로써 우리의 부부싸움이 끝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기도를 하면서, 나는 내가 남편에게로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그로 인해 나는 다소 놀랐으며, 곧바로 기도하기를, 나는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파고 들었다. “네가 옳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결혼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느냐?”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남편이 사과할 때까지 굴하지 않으면서 내 자존심을 지킬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며칠? 우리가 서로 말을 하지 않는 동안 나는 괴로웠다. 비록 이 일이 우리의 결혼 생활에 중지부를 찍지는 않겠지만, 내가 만약 항상 양보하지 않는다면 오랜 세월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결혼 생활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 나중에는 사소한 일이 되어버릴 것을 가지고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는, 행복하고 사랑스런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결정을

결혼 관계를 먼저

내렸다.

나는 남편에게로 가서 화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남편도 사과했고 우리는 곧 사랑으로 다시 행복하게 하나가 되었다.

그때 이후로도 나는 내 자신에게 그 질문을 다시 해볼 필요가 몇 번 있었다. “네가 옳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결혼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느냐?” 이 질문을 처음 접했을 때 배운 이 위대한 교훈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 질문은 나의 관점을 재정립함으로써 내 자존심을 앞세우기보다는 남편과 나의 결혼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데 언제나 도움을 주었다. ■

어느 와드에서든 “편안하게”

새로운 와드나 지부로 가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다. 여기 낯선 이들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다섯 가지 제언들을 소개한다.

캐서린 피 풍

수년 전, 내가 얼마 동안 활동이 저조하였다가 다시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나는 와드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회개를 바라는 슬픈 죄인이었음을 알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의 환한 미소와 사랑스런 간증에 비친 선한 모습은 너무나도 확연했고, 상대적으로 내 죄는 어둡고 가엾게 느껴졌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여러 상황에 처한 새로운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너무 도드라져 보인다고 생각하거나 특별히 민감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집회소로 걸어 들어가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아 혼자서 찬송가를 부르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인식하는 사람으로서는 기가 꺾일 수 있는 일이다.

자녀가 없는 독신 여성으로서 나는 새로운 와드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두려운 일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직업상 자주 이사를 다니면서 매번 긴장한 채 낯선 사람으로 가득찬 예배실로 들어가는 일을 반복하게 되었고, 그렇게 수년

동안을 보내면서 나는 내가 속한 와드에서 새로운 태도를 취하는 법과 낯선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친구로 만드는 법을 터득했다. 다음 방법들을 사용하면 누구든지 세계 어디를 가든, 어느 와드나 지부에서도 편안한 느낌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왜 교회를 다니는지 기억한다.

예배당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성스럽고 안전한 장소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기도, 찬송, 그리고 목적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한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나의 경우처럼 구주의 속죄에 참여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기억하면 도움이 된다.

자신을 소개한다.

나는 감독단을 찾아가 먼저 나를 소개함으로써 내가 새로운 회원임을 알렸다. 그런 다음, 나는 대체사 그룹 지도자가 누구인지 알아 두었다. 왜냐하면 그가 내 가정 복음 교사가 될 대체사들을 지정해 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나는 자매로서 상호부조회 회장단에서 봉사하는 자매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와드 서기 역시 내





긴 장을 풀고
와드나 지부
회원들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사람들과
친해지면 교회에서 편안한
느낌을 갖기 시작할 것이다.

와 드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고
여러 모임에
참석하면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기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자신을
소개하는 기회도 된다.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야 이전 와드에서 내 회원기록 카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들은 나를 와드의 다른 회원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와드나 스테이크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으며, 부름을 받을 때 필요한 도움을 주었다.

나는 처음에는 예배당의 가장 뒷자리 문가에 앉아 폐회기도가 끝나자마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 내가 누구인지 묻기 전에 서둘러 나가곤 했었다. 그러나 눈을 아래로 떨구거나 출구만을 쳐다보며 모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새로운 와드에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간다. 자기가 참석할 반에서 공과를 가르친 사람들이나 성찬식에서 말씀을 한 사람들에게 악수를 청한다.(이들은 나중에 현관

로비에서 만날 수 있다.) 교실에 들어가서 앉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살펴보면 매번 다른 사람이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 와드나 지부의 활동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태워 달라고 용기를 내어 부탁한다. 대개 교실에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 쉽다. 와드나 지부의 인명록을 부탁한다. 이것은 이름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머지 않아 이름과 얼굴이 연결되면서 더 이상 그들은 낯선 사람들이 아니다. 당신도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다.

봉사한다. 이웃이나 와드 또는 지부 회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어떤 회원이 들어올 때 문을 잡아주며 인사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일도 좋다.(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원 봉사자 명단에 이름을 적는다.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찾아 병문안을 한다. 부름을 받아 들인다. 적절한 경우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부름 이외에도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알려 줌으로써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린다.

참여할 준비를 한다. 주일학교와 신권회 및 상호부조회 모임은 공과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공과 교재를 구입하여 해당 공과를 미리 읽어보고 경전을 읽거나 생활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배운 원리들을 예를 들어 설명할 준비를 한다.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두려움을 가라 앉히고 복음의 참됨에 관한 간증을 나눌 준비를 한다.

새로운 얼굴들을 찾는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임!”(에베소서 2:19)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교회 회원들 사이에서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와드나 지부 가족들은 모두 열려있다. 어느 누구도 빼놓을 수 없다. 모든 회원들과 우정을 쌓는 일이 항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순수한 간증을 지니고, 서로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 지며, 서로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주님을 섬길 수 있길 바란다면,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모든 지부 또는 와드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 내가 지금 참석하고 있는 와드가 나에게 가장 행복한 곳을 진실로 간증할 수 있다. ■



굳건히 서라



우리의 표준은 바람의 방향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 결정된다.
(히라맨서 5:12 참조)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함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선한 행실이 가득하[게 하라]”
(모사이사서 5:15)



본부 청남 회장단 및 청년 회장단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함이란 무슨 뜻입니까? 굳건함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어 변하지 않고, 신념과 결단력이 확고하며, 성실하고 충실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흔들리지 아니함은 단호하며, 움직이거나 다른 곳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함은 그분을 따르기로 약속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항상 선한 행실이 가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한 사람들의 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위에 쌓아야 할 반석이며 확실한 기초가 됩니다. 그분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므로 항상 선한 행실이 가득하신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굳건히 서 계신 살아 계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계십니다. 점점 더 어둡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의 선지자이신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께서서는 지금 이 세상을 살기에 좋은 때로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분이므로 변함없이 큰 모범이 되십니다.

또한 경전에는 자신들이 믿은 바와 같이 그 삶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한 훌륭한 남자와 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경에서 모로나이 대장이 “강하고 용맹한 사람이라. 그는 완전한 이해를 갖춘 사람이었으니... 그 영혼이 자유를 기뻐하며 그 나라가... 자유를 누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으며, ...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그 마음이 충실한 사람이요, 그 백성의 복리와

안전을 위하여 심히 수고하는 사람이었더라. ... 그는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견고한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엘마서 48:11~13)

우리 모두가 만약 그와 같이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전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과거나, 현재에나, 장차 언제까지나 모로나리와 같을진대, 보라, 지옥의 권세들이 영원토록 흔들렸을 것이요, 참으로 악마가 결단코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리라”(엘마서 48:17)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모로나이는 “백성에게 봉사함이 [모로나이] 못지 아니하였[던]”(엘마서 48:19) 힐라맨과 그 외 다른 형제들과 함께 봉사했습니다. 힐라맨은 오늘날의 용감한 청소년들처럼 “무엇이든지 그 맡은 일에 항상 충실한 자들이었고[고], ...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던]”(엘마서 53:20~21) 이천 청년 병사의 선두에 섰습니다. 이 청년들은 참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에스터는 굳건하고 단호했던 사람의 또 다른 예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장소와 상황으로 주님에 의해 인도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모르드개는 그녀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에스터 4:14)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신앙과 결단력을 가진 본보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선한 행실이 가득한 여러
 가지의 훌륭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기쁘게
 성전 성약을 지키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전세계의 선교사들이
 봉사함에 있어 철저하게
 순종하고 충실한 것을
 봅니다. 지도자들, 고문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친구들도 이러한 자격을 갖춘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모범을
 따라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는 결단력 있고
 순종심과 합당성에 있어 단호함을 지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십일조를 바치고, 지혜의
 말씀에 따라 살며, 모임에 참석하고,
 생각과 행실을 깨끗이 하고, 신권을
 존중하며, 가족과 친구에게 친절함에
 있어 완전히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함으로써
 받는 축복**

2008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성구는 베냐민 왕의 마지막
 설교(모사이야서
 2~5장 참조) 끝
 부분에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말씀에
 감동되어 그들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이루었으므로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었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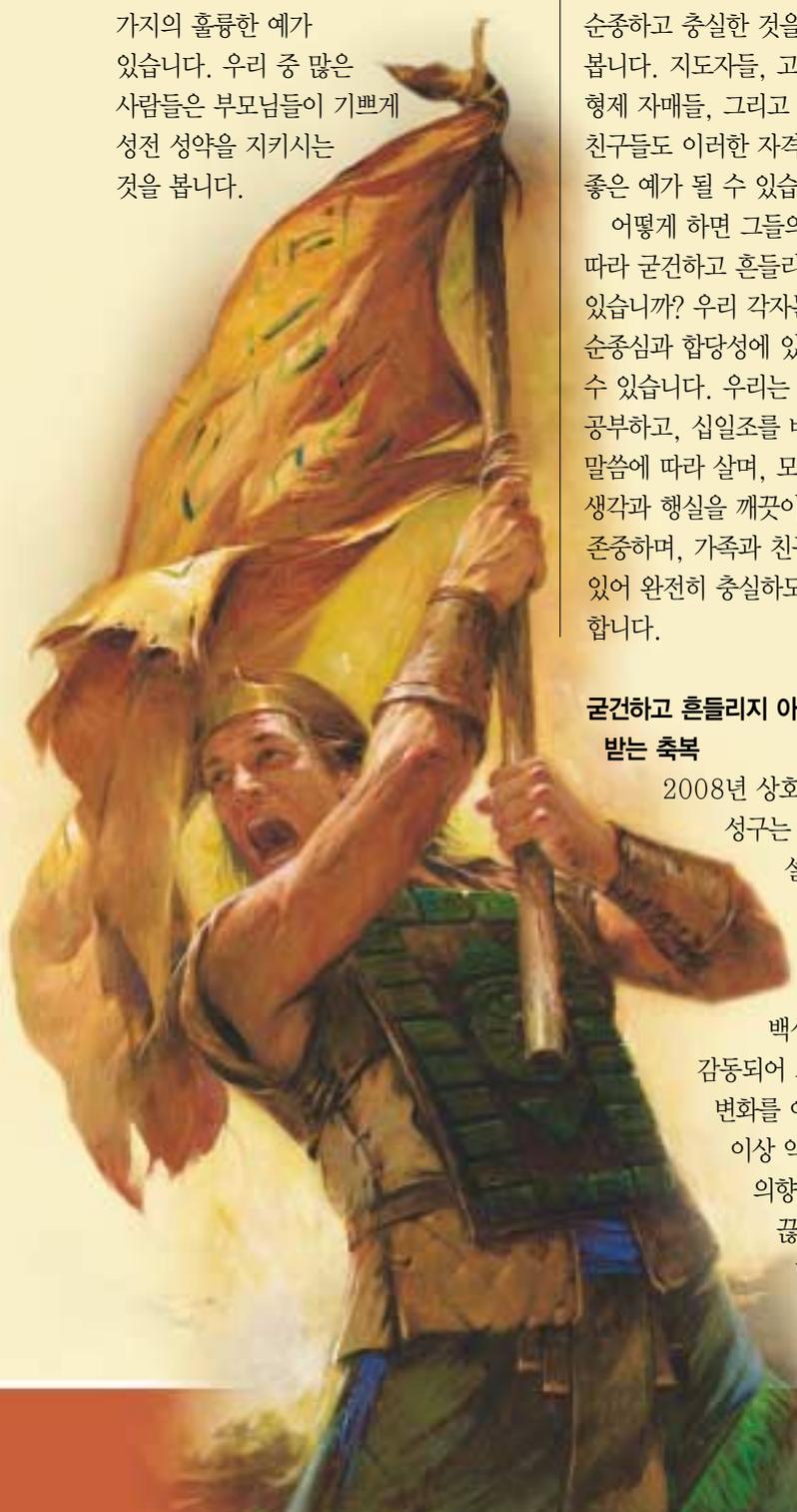
했습니다.(모사이야서 5:2 참조) 이
 변화를 보고 베냐민 왕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서 “[그들을] 자기의
 것으로 인 치시어, [그들로] 하늘에
 인도되게 하시고, ... 영원한 구원 ... 을
 갖게 해실!”(모사이야서 5:15)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인 치다**라는 단어는
 “성신의 확증하는 권능을 뜻하며 ...
 성신으로부터 ‘확인 도장’을 받는 것은
 복음의 성약을 존중하는 일에서 충실함,
 성실, 그리고 꾸준함을 보인
 결과입니다.”¹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확실한 기초를 쌓을 때 우리도 이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큰 변화를 이루어 성신의 승인 권세를
 통하여 영생의 인 치심을 받아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

1. “너희는 거듭나야 하리라”,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19쪽.



나는 왜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났을까?

스텐 버드

처음에 나는 아내인 에바가 팔꿈치로 찌르는 줄 알았다. 등을 돌려서 봤지만 아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을 때 나는 거실로 가야 한다는 분명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침대에서 미끄러지듯이 내려와 복도 쪽으로

향했다. 아이들 방 옆을 지나면서 아이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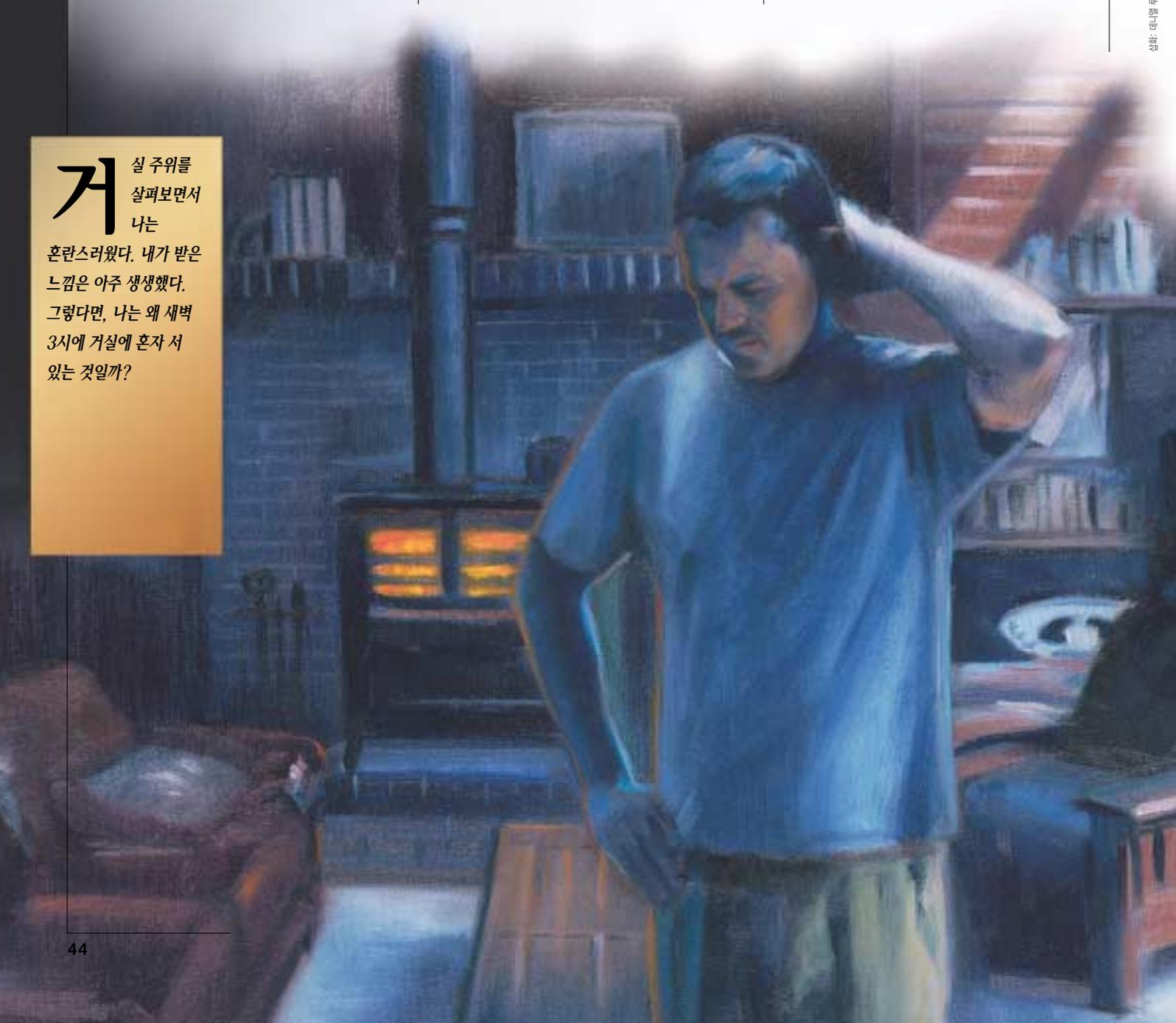
거실에 있는 석탄난로에서는 저녁에 올려 놓은 석탄이 타면서 따뜻한 열기가 퍼져 나오고 있었다. 난로의 공기 유입을 조절하는 댐퍼(Damper)는 알맞게

맞추어져 있었고, 화덕도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것 같았다. 강아지도 나의 기척을 느끼지 못한 채 잠자고 있었다. 집 밖에는 눈으로 뒤덮인 마당 위로 움직이지 않는 그림자들만이 드리워져 있을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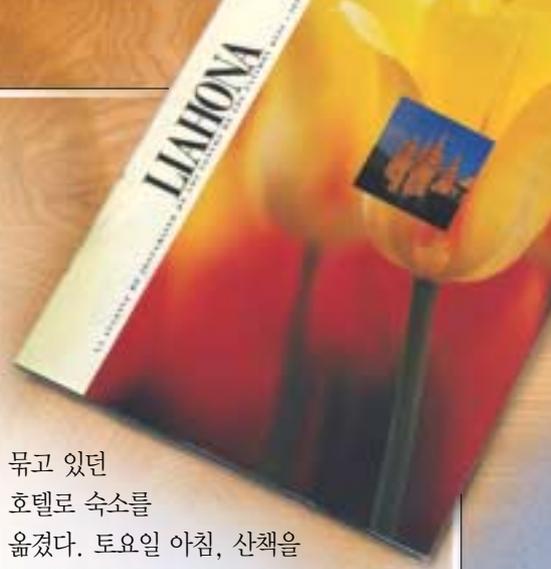
다시 한번 거실 주위를 살펴보면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받은 느낌은 아주 생생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새벽 3시에 거실에 혼자 서 있는 것일까? 몇 분 더 그 곳에 머물러 있던 나는 결국

거실 주위를 살펴보면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받은 느낌은 아주 생생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새벽 3시에 거실에 혼자 서 있는 것일까?



삽화: 데니얼 루이스. 사진: 폴링, 에밀리 리치먼



침대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제 막 침실로 가려는데 내 뒤쪽에서 금속이 부딪치는 ‘씩’ 소리가 들렸다. 재빨리 뒤돌아보니 난로의 끝에서 연기와 함께 빨갭게 달궈진 부스러기 재가 소용돌이치듯 날리고 있었다. 난로 연통의 마디마디를 연결해 주던 대갈못 하나가 부러지면서 연통의 한 부분이 미끄러져 내려와 다른 부분에 겹쳐졌고 그로 인해 연통에 크게 벌어진 틈이 생기게 된 것이었다.

나는 곧장 에바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는 난로 주변에 보관해 두었던 두꺼운 가죽장갑을 끼고 연통의 연결 부분을 다시 끼워 맞췄다. 연통의 벌어진 부분을 다시 연결한 후, 에바를 도와 연기가 가득한 거실을 환기시켰다. 그런 후에 우리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 보았다.

재와 매연이 카페트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을 태웠을 뿐이었다. 연통의 대갈못이 부러진 순간에 내가 만약 그곳에 없었더라면 거실 전체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을 것이다. 집이 파괴되고 우리 가족의 생명까지 앗아갈 뻔 했던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부드럽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성신의 느낌에 감사했다.

다시 잠자리에 들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추운 겨울 밤에 작은 금속 대갈못 하나가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해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

제가 어떻게 교회에 갈 수 있을까요?

알베르토 보카

19 97년, 나는 베네수엘라의 라 빅토리아에서 업무와 관련해 10일 동안 예정된 출장중에 있었다. 이탈리아의 집에 생각보다 늦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일요일에 참석할 후기 성도 교회 예배당을 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나는 마라카이에 예배당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젊은 이탈리아인 기술자와 친구가 되었다. 그는 나에게 지도를 그려 주었다. 내게는 차량이 제공되어 있었지만 불행히도 나는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의료 검진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그 지역의 지리를 잘 몰랐고 스페인어를 아주 조금밖에 하지 못했으며, 몇몇 사람들로부터 혼자서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라는 충고를 받은 상태였다. 나는 고민에 빠졌다. 부활절 일요일이 다가오면서 나는 정말 성찬을 취함으로써 성약을 새롭게 하고 싶었다. 운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마라카이의 교회에 참석할 수 있을까? 만약 운전을 한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걸리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신앙개조 12조가 마음속에 떠올랐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복종할 것과, 법률을 순종하고 존중하며 지지할 것을 믿는다.” 나는 운전을 하기보다는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될지라도 그 지역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교리와 성약 58:21 참조)

며칠 후에 나는 몇몇 직장 동료들이

뚫고 있던

호텔로 숙소를

옮겼다. 토요일 아침, 산책을

하고 난 후에 나는 다음날 교회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며 호텔로 돌아왔다. 호텔 접수

창구 옆을 지나는데 놀랍게도 스페인어로

된 리아호나 한 권이 눈에 띄었다.

“여기 혹시 누가 이 교회 회원인가요?”

라고 나는 물었다. 누군가가 그 잡지는

한 호텔 직원의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접수계원은 그 직원의 사무실에 가서

내가 만나고 싶어한다고 전해주었다. 그

형제와 만나 우리가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이 훌륭한 형제는

바로 그곳 라 빅토리아에 한 와드가

있으며 그 와드 건물이 호텔에서 금방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다음날

아침 나를 만나서 교회에 기꺼이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나는 결국 라 빅토리아에 두 달 더

머무르게 되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교회 모임들과 활동들에 기쁘게

참여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부활절 이후 얼마 안 되어서 나는

합법적인 면허증을 취득했고, 그로 인해

마라카이에서 열린 스테이크 대회에도

참석할 수 있었다.

내가 베네수엘라에서 생활하는 동안,

비록 불편함을 겪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의 법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나의 간증은 강화되었다. 또한 나는

교회 출판물이 주님의 축복을 나누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도구라는 간증까지

얻었다. ■



응답이 담겨 있는 책

알라산드라 마리아 페레이라 드 플라

아 마존 정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나는 여러 종파의 선교사들이 미국 원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이나 복음, 또는 침례와 같은 구원의 의식들에 대해 들어 본 적도 없는 그들의 수많은 조상들의 구원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구주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면 왜 역사 속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들을 기회로부터 제외되었을까?

성경에서 그것에 관한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나는 구약 시대에 미 대륙에 있었던 문명의 존재에 대해 말해 주는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목사도, 신부도,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도 나의 질문에 답해 주지 못했다.

어느 날, 나는 한 찬송가를 듣고 영적으로 감동을 받았다. 나는 이 찬송가를 모국어인 포르투갈어로 배웠다. 내가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후기 성도인 나의 이웃 제수이나가 미국 선교사들의 방문을 자주 받는다는 사실이 기억났다.

나는 그녀에게 선교사들이 나를 위해 그 찬송가를 번역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다음 날 선교사들은 번역한 것과 함께 짧은 메모를 남겨 놓았다. 그 메모에는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쁩습니다. 언젠가 당신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일주일 후에 선교사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나에게 교회에 참석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나는 물몬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나의 가족들과 내가 다녔던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은 물몬들을 위험한 종파라고 부르며 비판하곤 했었다. 그들은 모순된 많은 비난을 가했고 나는 그것들을 믿었다. 그렇지만 비가 내리던 어느 일요일, 나는 호기심에, 그리고 그들이 내게 보인 친절함에 보답하기 위해 그들의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강한 소망을 품고 잠에서 깨어났다. 처음 참석한 모임에서, 사람들이 단상으로 올라가 교회와 물몬경이 참되며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증거했다. 나는 다소 마음이 뒤숭숭한 상태에서 그 모임이 끝나자 주일학교 반으로 갔다.

교사가 경전이나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 언급할 때 나는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녀가 물몬경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조용히 수심에 잠겨 있었다.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다른 책이 필요할까? 내가 떠나기 전에 그 교사는 토론에 참여한 것에 대해 내게 감사를 표했고, 놀랍게도 그녀의 물몬경을 내게 주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방에 들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와 진실한

대화를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께 물몬 교회에 대해 특별한 것을 느꼈지만 사탄이 나를 현혹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드렸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혼란을 없애고 어느 교회가 참된지 알려 주시도록 기도했다.

그 후에 나는 물몬경을 읽고자 하는 강한 소망을 느꼈다. 나는 다시 한번 힘과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기도 하는 중에 나는 내부로부터 느껴지는 강하고 따뜻한 좋은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 순간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즉시 떠올랐다: “그 책을 읽어라!”

나는 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다. 소개 부분을 끝까지 읽기도 전에 주님께서 미국 원주민에 관한 수수께끼의 해답을 내게 보여 주셨고 눈물이 내 볼을 타고 흘러 내리기 시작했다. 물몬경은 나의 의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특별히 준비된 것 같았다. 나는 나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주어진 것에 대해 큰 기쁨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고대 미국 원주민들이 내게 그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 또한 예수님을 알았고, 그분께서 또한 그들을 위해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무덤에서 말하는 것 같았다.

내가 발견한 것에 놀라며 나는 선교사들을 찾아 그들의 토론을 들었다. 1991년 3월 31일 부활절 일요일에 나는 내가 인생에서 내린 가장 훌륭한 선택인 침례의 물가로 내려갔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그분의 위대한 지혜에 대해 정말 감사드린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그분의 자녀 하나라도 잊지 않으시고, 모든 인류에게 그분의 계획을 보이시기를 열망하신다는 것을 안다. 나는 물몬경이 신성한 책이라는 것을 안다. 그것은 참되다! ■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

오브리 윌리엄스

고 등학교에서 나는 우리 가족이 인정하지 않는 남자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결국 가족의 반대로 나는 나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적대감과 부모님에 대한 증오로 가득차게 되었다. 불행히도 나는, 그들은 나에게 있어 무엇이 좋은지 알지 못하며, 오직 나만이 그것을 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어쩌면 그렇게도 나의 남자친구를 반대할 수 있을까? 사실 가끔은 남자친구가 나에게 심한 말을 할 때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그 말고는 누구도 나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러나 남자친구에게 학대 받는 관계가 지속되면서, 나의 감정과 이해가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가 나 있었고 그 다음에는 곧바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곤 했다. 나는 교회로부터 멀어졌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회피했으며 영적인 것이면 무엇이든 피하고 특히 좋은 음악을 멀리했다. 나는 마음에 상처를 입었지만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나의 삶과 내 주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의 바이올린 선생님이 내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는 악드

초등회 음악 지도자였고, 악드에서는 초등회 어린이들이 노래를 발표하는 성찬식을 계획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내게 초등회 발표회 때 몇 곡의 바이올린 부반주를 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네”라고 대답했다. 그녀가 내게 악보를 주었을 때 나는 제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곡의 제목은 “난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였다.

나는 음악의 영적인 힘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설레지 않았다. 나는 내가 얼마나 나의 가족들을 증오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연습하지 않을 때에는 노래들을 마음속에서 몰아내려고 노력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영을 쫓아내는

모든 일을 하면서도 여하튼 발표할 노래들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공연하기로 한 일요일이 다가왔고 나는 공연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영은 내게 노래의 가사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해주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영의 영향력을 무시하려고 무척 애썼다. 하지만 마지막 음악 순서가 되었을 때 나의 바이올린 선생님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다. 그녀는 뒤돌아 서서 청중들에게 함께 노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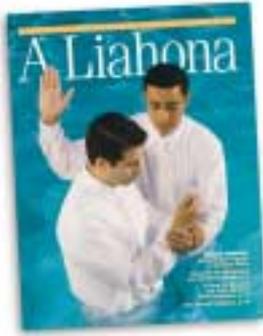
바이올린줄에 활을 얹고 첫 번째 음을 켰다. 아주 강한 영이 내게 엄습하여 두 번째 단락을 마치기도 전에 눈물이 나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영은 내게 노래의 가사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그분께 내가 늘 특별한 존재이며 나에게 학대하는 남자친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해 주었다. 내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했다.

노소를 막론하고 찬송가의 단순한 노랫말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음성엔 내가 하나님과 가족,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도록 도왔다. 음악은 나에게 가장 예민한 부분이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음악이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셨다. 변화해야 하는 대상은 가족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다.

주님은 음악의 힘을 알고 이해하신다.(교리와 성약 25:12 참조) 음악은 우리를 고양 시키고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영으로 인도한다. 나는 항상 음악과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내 삶에 가져다주는 영에 감사할 것이다. ■





하나님과 더 가까워 짐

교회에 다니지 않을 때에도 저는 여전히 리아호나를 구독하고 싶어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웹사이트에 방문해 정기 구독을 신청했고, 한 자매님이 즉시 한 부를 보내 주셨습니다. 저는 신회원들을 위한 2006년 10월호를 받았을 때 매우 기뻐했습니다. 리아호나는 저를 깊이 감동시켰고 이 복음의 진실함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리아호나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 짐을 느낍니다.

마르시오 호너리오 페레스, 브라질

신앙을 키움

저는 리아호나를 읽을 때 참 기쁩니다. 저는 상호부조회 공과와 가정의 밤을 위해 이 잡지를 사용합니다. 저는 교회 회원이 아닌 친구에게 리아호나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고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리아호나 읽기를 좋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참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키울 수 있도록 훌륭한 주제와 공과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야소야마 베나드, 미국

매일의 지침

리아호나는 변치 않는 동반자와 같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할 때나 집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가능한 기회를 이용하여 매일 읽습니다. 총관리 역원의 말씀과 여러 실제 이야기들은 제 삶을 바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간증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지침입니다.

윌프레드 케니스 에프. 위크코로, 나이지리아

힘겨운 날 뒤의 휴식

저는 방과후면 너무나 피곤해서 휴식을 갖기 위해 방으로 갑니다. 저는 리아호나를 읽습니다. 저는 리아호나 읽기를 즐깁니다. 모든 메시지가 참으로 영감에 차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저는 이것들이 참되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압니다.

줄리 앤 디아마다 볼리저, 필리핀

속죄의 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기사 하나가 리아호나에 실렸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나의 죄가 이미 지난 일이며 이제는 전진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현재 청년 회장이며 청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무척 행복하며 아직 침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비아다 마르티네즈, 도미니카 공화국

갯세마네의 그리스도, 헨리치 호프만, C. HARRISON CONROY CO. 제공

선교 사업의 기초

리아호나는 선교 사업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기초입니다. 저는 이미 리아호나의 기사들을 활용하여 여러 구도자들에게 특별히 침례와 확신 의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페트라 론저리치, 독일

여러분의 의견을 e-mail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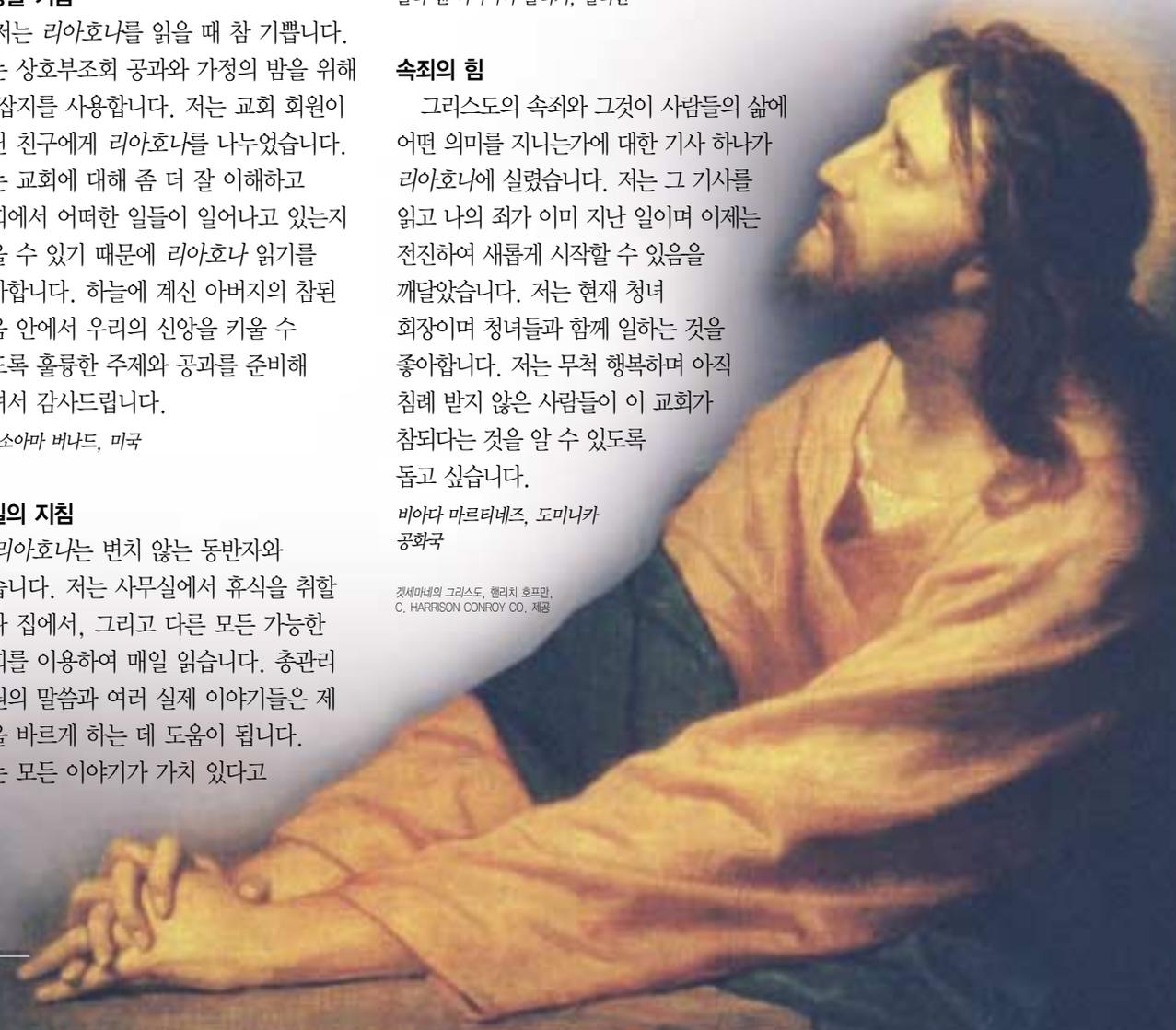
liahona@ldschurch.org나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Comment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서한은 분량과 명확성을 위해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



새날의 빛

고든 비 힝클리 회장



힝클리 회장은 우리가 모두
형제요, 자매임을 상기시켜
주신다.

저는 전직 수상이셨던 한 분과 기억에 남는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 생애 동안 많은 전쟁과 분쟁을 보아 왔습니다. 그분은 친구 두 명과 함께 담화를 나누고 있던 한 유대교 랍비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랍비는 친구 중 한 명에게 “밤이 지나고 새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랍비의 친구는 “동쪽을 보고 양과 염소를 구별할 수 있다면 밤이 지나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친구도 같은 질문을 받고는 “먼 곳을 보고 올리브 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구별할 수 있으면 아침이 왔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이 랍비에게 밤이 지나고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쪽을 바라보고 한 여인의 얼굴을 봤을 때 ‘그녀는 나의 자매다’라고 말할 수 있거나

동쪽을 보고 남자의 얼굴을 봤을 때 ‘그는 나의 형제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새날의 빛이 밝았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잠시 동안 그 말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형제애의 참 의미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증오심을 파괴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큰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지상에 온 이유입니다—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마음을 움직여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여길 수 있게 말입니다. ●

2006년 10월 31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하신 연설 및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성도의 빛, 1996년 12월호, 8쪽.

생각할 점

1. 이 이야기에서 랍비는 사랑을 새 아침의 빛에 비유하고 있다. 복음의 빛은 왜 우리 마음에 사랑을 가져오는가?

2. 여러분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도록 도울 수 있는가?

3.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복음이 주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가?



구원의 계획

출생

죽음

천세

영의 세계

지상 생활

주: 잡지에서 책장을 떼어내고 싶지 않으면,
인터넷 www.lds.org에서 이 활동을 복사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다른 언어는 "Languages"를 클릭한다.



삼화

부활

최후의 심판

별의
왕국

달의
왕국

해의
왕국

나의 삶은 선물이네; 나의 삶에는 계획이 있어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린다 크리스틴슨



나는 하나님 계획 따르리;
하늘의 목표대로 살아왔네
날 때부터 주의 빛 찾아

지상의 훌륭한 집 갖게 되었다네

(“나는 하나님 계획 따르리”, 어린이 노래책, 86~87쪽)

이 노랫말은 여러분이 이 지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구를 창조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구는 여러분이 와서 육신을 입을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는 선택의지가 주어졌고, 여러분은 지상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도록 배울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경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물몬경의 선지자인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로 선택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 생활을 위해 이곳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은 회개하고 죄를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 야곱은 “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냐!”라고 말했습니다.(니파이후서 9:13)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인 경전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그분의 계획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계획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지상에서 행복을 누릴 것이며,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활동

친4쪽을 떼어내어 두꺼운 종이에 붙인다. 검정색 실선을 따라 각 모양들을 자르고, 플란넬 천조각 또는 표면이 거친

물질을 뒤쪽에 붙인다. 완성된 플란넬 판의 삽화를 이용해 플란넬 판 모양들을 올바른 위치에 놓는다. 구원의 계획에 대해 배우고 여러분이 배운 것을 가족들과 나눈다. 이 활동을 가정의 밤 공과 시간에 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본다.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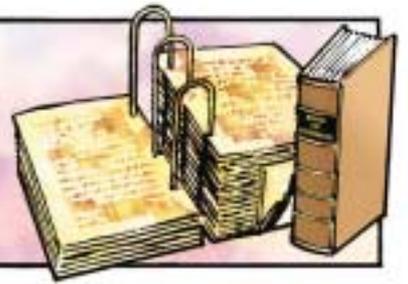
1.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사진 및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을 보여 준다. 선언문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어린이들이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을 외우도록 돕는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육신을 갖는 축복에 대해 토론한다. 나의 복음 표준을 인용한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성스럽고 깨끗하게 지키고 나에게 해로운 것은 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2. “나에게는 신성한 운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어린이들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신성한(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진)이라는 말과 운명(예정된 계획)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토론한다. 아브라함서 3장 23절을 함께 읽는다. “너는 네가 태어나기 전에 택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문장에 밑줄을 긋는다.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해 나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세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아셨고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강조한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다. 중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태어나기 이전에 선택 받은 몇몇 다른 사람들의 예를 나눈다: 조셉 스미스(니파이후서 3:14~15 참조), 고든 비 힝클리(“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81쪽 참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모세서 4:1~2 참조).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지상에 있는 동안 완수해야 할 중대한 사명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를 바라실까요?”라고 질문한다. 각 사람에게는 신성한 운명이 있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간증한다. ●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홀륭하신 부모에게서 태어나



조셉 스미스는 의로운 부모를 통해 선지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루시 맥 스미스가 젊었을 때, 그녀는
몹시 위독해졌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저를
살려 주시면 언제나
당신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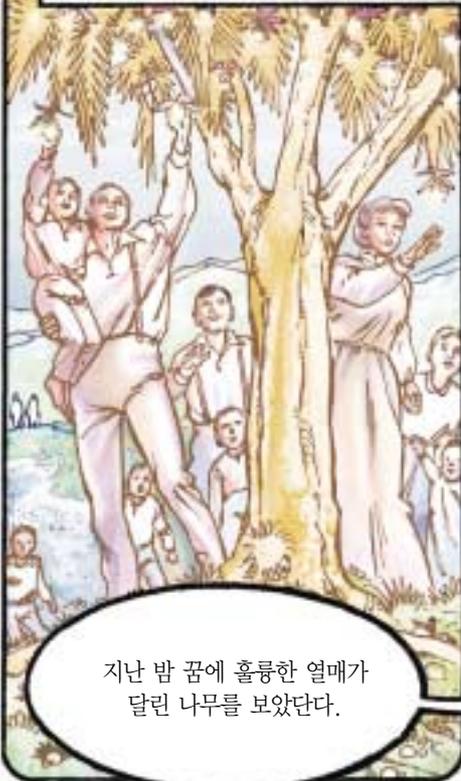
그녀는 곧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침례를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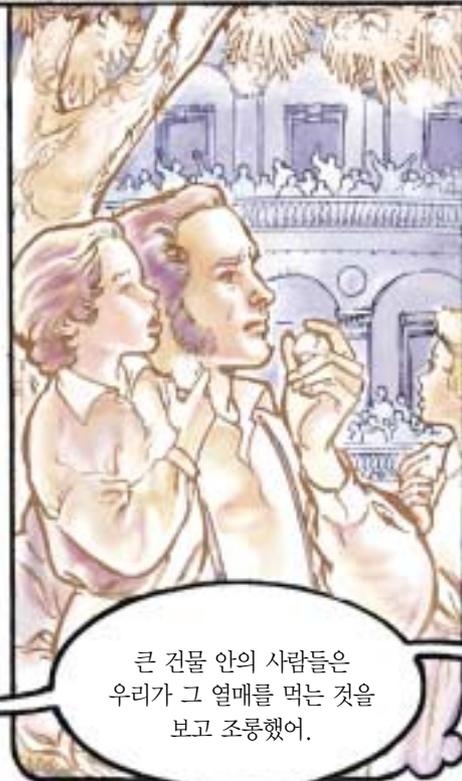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는 않고
침례만 받고 싶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참된 교회가 지상에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성경에는
제가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조셉의 아버지 또한 신앙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첫번째 시현을 보기 몇 년 전, 조셉 스미스 일세가 본 시현은 그로 하여금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리하이와 니파이가 본 것과 같은 시현을 보았습니다.



지난 밤 꿈에 훌륭한 열매가 달린 나무를 보았다.



큰 건물 안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 열매를 먹는 것을 보고 조롱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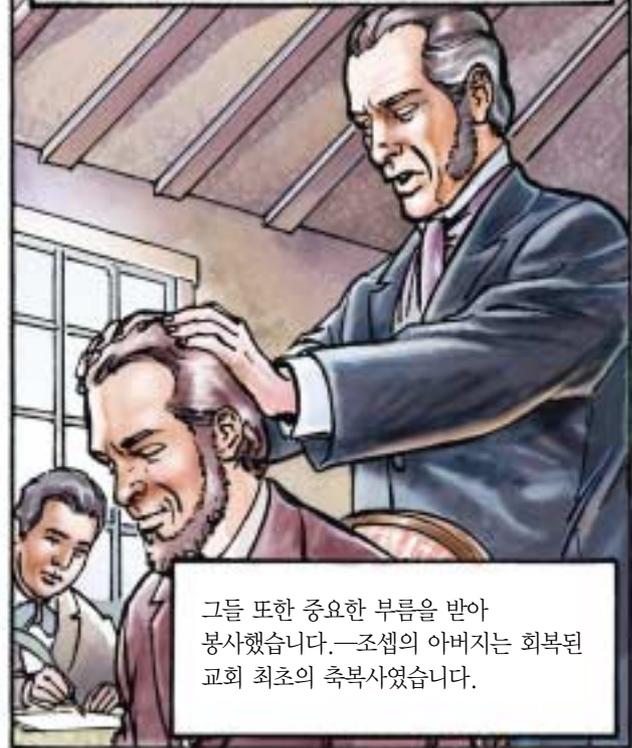
나는 그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고 들었다.

어린 조셉은 그의 부모로부터 기도와 경전 읽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는 질문의 답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어서 오렴. 성경을 읽고
가족 기도를 할 시간이다.

조셉의 첫번째 시현이 있은 후, 그의 가족은 그를 믿었으며 그의 막중한 부름을 지지했습니다.



그들 또한 중요한 부름을 받아 봉사했습니다.—조셉의 아버지는 회복된 교회 최초의 축복사였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물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조셉 스미스

12. 12월
모로나아서

1~5장, 10장

1. 1월
니파이전서

2~4장,
7~8장, 18장

2. 2월
니파이후서

3~5장, 9장

11. 11월
이더서

1~3장, 6장

3. 3월
야곱서

1장, 7장

10. 10월
몰몬서

1장, 6~7장

저는 몰몬경을 읽겠습니다

줄리 티 레ιβ

4. 4월
이노스서, 예이롬서,
음나아서, 몰몬의 말씀

이노스서 1장

9. 9월
제4니파이

책 전체

8. 8월
제3니파이

8~11장, 17장

7. 7월
힐라맨서

13~15장

6. 6월
앨마서

14장, 17~18장,
53~56장

5. 5월
모시아아서

11~13장,
17~18장, 27장

종

석이란 아치의 꼭대기에 위치한 중심돌입니다. 종석은 다른 돌들이 제자리에 있도록 합니다. 종석이 빠지면 아치는 무너질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64쪽)

이 활동은 올해 여러분의 몰몬경 읽기를 확인하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이 페이지들을 주의해서 떼어냅니다. 이 페이지 아랫부분의 그림을 오려낸 후 아치를 매듭니다. 몰몬경의 독서 분량을 끝낼 때마다(개인적으로, 또는 가족과 함께) 맞는 그림을 오려서 아치의 해당 부분에 붙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탤릭체로 쓰인 장만 읽어도 됩니다. ●

주: 리아호나에서 책장을 떼어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인쇄한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Languages"를 클릭한다.



신화: 스킷 그래픽

넥타이의 교훈

“나의 백성을 위하여 이름만이 아닌 명실상부한 감독이 되라. 주가 이르노라.”(교리와 성약 117:11)

크리스틴 찬들러
실화에 근거함

“오 ... 이럴 순 없어!” 라이언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그는 늘어진 넥타이의 끝을 바라보았다. 30분째 혼자서 씨름하고 있었다.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어? 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라이언?”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오세요.” 가리앉은 목소리로 그가 대답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잘 되어가니?” “잘 안돼요.” 그가 대답했다. “아빠가 매시는 것처럼 매고 싶어요.” 어머니의 얼굴에 잠시 어두운 표정이 비쳤다가 금새 사라졌다. 라이언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하고 생각했지만 이미 어쩔 수 없었다. 어머니는 넥타이 한 쪽을 그의 목에 둘러쳤다. “스카우트 지침서를 참고하면 되겠지?” 그녀는 지침서를 찾으러 나갔다. 라이언은 열두 살이 되도록 혼자 넥타이 매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 속상했다. 언제나 아버지가 그의 넥타이를 매어 주곤 하셨다. 그러나 현재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아버지는 도시의 반대편에 사신다. 어머니는 책을 펼쳐 들고 다시 나타나셨다. “내가 해볼까?” 그녀가 물었다. “네”, 라이언은 거절하기가 죄송해서 대답했다. 어머니는 현명한 분이지만 넥타이를 잘 매는 분은 아니었다. 어머니는 종이 접기 작품 같은 모양을 만들었다가 풀어내고는 다시 시도하셨다. 또 한 번의 실패 후,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갑자기 라이언의 누나 케이티가 불쑥 화장실로 들어왔다. “라이언! 넥타이가 그게 뭐니?” 누나는 마치 그의 넥타이가 돌연변이 생물체라도 되는 듯 외쳤다.

“문제 없어!” 어머니는 다시 타이를 매기 시작하셨다. “문제가 있긴 해.”

“늦겠어요.” 라이언은 상한 기분을 감추며 말했다. 그러나 이미 그는 마음이 상해 있었다. 그가 집사 신권을 받은 후 처음으로 성찬 전달을 하는 날인데, 그의 넥타이는 말이 아니었다.

“그런 모습으로 성찬을 전달할 순 없어”라고 케이티가 말했다.

어머니는 부드럽게 케이티를 화장실 밖으로 밀어내고 다시 들어오셨다. “좋은 생각이 났어.” 하고 그녀가 말했다.

라이언은 못미더운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교회에 좀 일찍 가서 감독님께 매어 달라고 부탁드리면 어떻겠니?”

감독님께?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라이언은 넥타이를 손에 들고 예배실로 들어가 사람들 앞에서 감독님께 넥타이 매는 것을 부탁하느니 차라리 집에 남아 있겠다고 생각했다.

“분명, 그분은 피터가 넥타이 매는 것을 매번 도와 주실걸.” 어머니가 말했다.

피터는 감독님의 아들이었다. “아닐걸요.” 라이언이 말했다. 그는 심각한 얼굴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잡아당겼다.

라이언이 예배당 문에 들어설 때 그는 창피함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감독님께 부탁하는 것을 보면 다른 소년들이 뭐라고 할까? 엄마는 왜 이걸 못해 주시는 거지? 그는 돌아설까 말까 망설였다. 그때



“저는 이 교회의 감독들이 갖고 있는 힘과 선함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이스라엘의 목자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60쪽.

넥타이 매는 법

넥타이를 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그림은 거울에 비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조용하고 강한 무언가가 교회로 들어가라고, 잘될 거라고 속삭여 주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는 문으로 걸어들어갔다.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오르간 연주자와 앞에 앉은 몇 사람들만 빼면 예배당은 거의 비어 있었다. 바로 그때 감독님이 라이언을 쳐다보셨다. 그는 경전을 내려놓고 라이언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어서 오렴, 라이언. 성찬 전달을 하게 되어 설레니?” 그가 물었다.

“음, 문제가 좀 있어요”, 라이언이 말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모두들 처음엔 긴장한단다. 내가 네 나이였을 때에는 어떤 자매님의 발을 밟았었지. 하지만 문제 없이 끝났단다.”

“그게 아니라”, 라이언이 머뭇거리며 넥타이를 들어 보였다.

“오. 이리 오렴.” 감독님이 말씀하셨다.

두 사람은 현관 쪽으로 나갔다. 감독님은 매듭 짓는 법을 보여 주셨고 라이언이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평범해 보이는 넥타이가 완성되었다. 앤더슨 감독님은 라이언을 놀리지도 않으셨고 넥타이 매는 법을 모르는 것에 대해 나무라는 기색도 없으셨다. 그는 라이언을 가엾이 여기는 것처럼 행동하지도 않으셨다.

“내게 넥타이 매는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해 주어 고맙다.” 예배당으로 들어가며 앤더슨 감독님이 말씀하셨다.

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여전히 부끄러웠지만 이제 넥타이를 제대로 매고 있었으므로 전보다는 기분이 훨씬 좋았다.

감독님은 라이언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셨다. “이 와드는 대가족이나 마찬가지로야. 나는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보살핌을 잘 받을 때 기분이 좋아진단다.” 그 후 그는 예배실 앞으로 걸어갔다.

라이언은 성찬을 전달하면서 익숙하고 미소를 띤 회원들의 얼굴들을 보았다. 그는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했다. 이 와드는 대가족과 같았고, 그는 그 가족의 일원인 것이 좋았다. ●



1. 넥타이의 넓은 쪽이 자신의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좁은 쪽 끝에서 약 30센티미터 밑으로 내려뜨립니다.



2. 넓은 쪽 끝을 좁은 쪽 위에 올린 후 아래쪽으로 감습니다.



3. 한 바퀴 돌려서 넓은 쪽 끝이 좁은 쪽 위로 한 번 더 지나게 합니다.



4. 넓은 쪽 끝을 자신의 목과 타이 사이로 집어 넣습니다.



5. 손가락으로 매듭을 느슨하게 잡고, 넓은 쪽을 앞쪽의 고리 사이로 통과시킵니다.



6. 손가락을 뺀 후 매듭을 조심스럽게 조입니다. 좁은 쪽을 잡고 매듭을 위로 밀어서 타이가 목 둘레에 맞게 조여지도록 합니다.

색칠하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모든 인간은,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성품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선교사로 자라나는 소년

존 케이, 스코틀랜드
파이프 글렌로스

김벌리 웹
교회 잡지



존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을 돕는다. 그는 누나 피비와 어머니 앨리슨을 사랑한다.

어느 차가운 1월의 아침, 앨리슨 케이가 문을 열자 두 명의 선교사가 빗속에서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녀는 후에, 그날 선교사들이 준비 날인데도 불구하고 추위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곧 침례를 받았고 교회 회원으로 확인을 받았다.

어머니인 앨리슨이 침례를 받았을 때 존의 나이는 네 살이었다. 그때부터 늘 존은 그 선교사들처럼 되고 싶었다.

십일조와 저축

어머니가 십일조를 내기 시작하자 존도 똑같이 했다. 인도주의 기금과 영구 교육 기금에 대해 들었을 때, 그는 그러한 기금도 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선교사들이 방문했다. 존은 선교사들에게 그들의 고향이 어디이고 가족은 어떠한지 그들이 몇 명이나 가르치고 침례 주었는지를 묻기 좋아한다. 그런데 이 날은 그들에게 선교 사업 비용을 어떻게 냈는지 질문했다. 선교사들은 부모님이나 다른 회원들이 도와 주는 경우가 많다고 대답했다. "저는 제 선교 사업 기금을 스스로 내고 싶어요."라고 존이 말했다.

10살의 나이에 그는 선교 사업을 여러 방향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열심히 일함

복음대로 생활하고 돈을 저축하는 것 말고도 존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 훌륭한 선교사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사실을 안다. “존은 가르치기 쉬운 아이예요.”라고 어머니는 말한다. 그는 바느질, 다림질, 세탁, 단추 달기, 정원의 잡초 뽑기, 세차 및 요리하는 법을 배웠다. 그가 일상적으로 하는 집안일은 자기 방을 치우는 일과 세탁물을 세탁기에 넣는 일이다.

존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1. 엄마의 미트 로프 (역자 주: 다진 고기, 계란, 야채를 섞어 덩어리로 구운 것)
2. 유도
3. 말타기
4. 애완동물인 기니피그, 새턴
5. 사자굴의 다니엘 이야기
6. 친구들과 놀기
7. 아버지와 등산하기
8. 미술(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
9. 피자
10. 그가 생각할 일이 있으면 올라가는, 뒷마당의 큰 나무



스코틀랜드 파이프의 글렌로스라는 곳은 어디인가?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한
부분으로 영국 제도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존은 자신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마을 글렌로스를
좋아한다. 그는 도시
중심부에서 약 8킬로미터
떨어진 교외에서 산다. 그는
집 주위의 오솔길과 언덕을
좋아한다. 그리고 특히 자전거를
타고 숲을 통과하는 것을
좋아한다.



미소를 전파함

존은 가정이 행복한 곳이 되도록 가족들, 특히 누나인 피비에게 친절하게 말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려고 노력해요.” 라고 그는 말한다.

존의 어머니는, “집안에서 존은 늘 휘파람을 불거나 노래를 한답니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우울증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존의 다정다감한 성품에 더욱 감사함을 느낀다. “존은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요. 존은 가장 충성스럽고 책임감이 강하며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아이입니다.”

존은 멜기세덱 신권 받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 축복을 줄 수 있기 위해서이다. 지금도 그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명량한 성품으로 그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고 있다. ●



회원 미술가들, 교회 출판물이 보다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도록 돕다



국제 화가 및 사진작가들의 데이터 베이스에 출품된 미술 작품들은 이 그림처럼 세계 전역에 있는 미술가들의 재능을 잘 보여 준다. 이 그림의 제목은 데자들로스이며, 페루의 존 자무디오가 그린 그림으로 그리스도의 복천년 통치를 묘사하고 있다.

보니 보이드, 교회 잡지부

점 점 더 늘어가고 있는 전 세계의 화가 및 사진작가들이 교회 잡지와 기타 교회의 공식 출판물들이 보다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교회의 교과 과정부는 리아호나 2005년 10월 호에 처음으로 전문 화가 및 사진 작가 모집 공고를 냈다. 그 이후, 여러 나라의 재능 있는 교회 회원들이 꾸준히 증가했고 이 기고자들의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었다. 이후에, 성화, 특히 신약의 성화를 그럴 국제 화가들의 모집 공고가 데이터 베이스에 추가되었다.

교과 과정부의 그래픽과 수석 디자이너로 이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있는 태드 피터슨은, “데이터



독일의 스테파니 오퍼만이 그린 파스텔화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출신 루이스 파커의 작품은 구약전서의 잠언에 나오는 성구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용하는] 목적은 미술의 문화적 정확도를 높이고 교회 출판물에 국제적인 교회의 면모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 회원들의 예술적 재능을 활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신약전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리아 호나 제작진들은 기고자들에게 2007년에 배울 신약전서 주제를 뒷받침하는 교회 출판물에 사용될 만한 그림과 삽화들을 제작하고 제출해 달라는 공고를 보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핀란드, 독일, 페루, 남아프리카의 화가들이

제출한 작품들이 사용되었다.

현재 31개국의 200명이 넘는 사진작가와 화가 및 디자이너들이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다.

기고자들은 수많은 교회 잡지 기사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선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인 나의 복음을 전파하리와 관련된 일부 지역화된 선교사 출판물을 위한 사진들을 제공했다.

국제 미술의 활용은 전세계 회원들간의 일체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피터슨 형제는 말했다. 이 작품들은 문화적 다양성과 여러 가지 표현 방식들을 보여 주지만, 성스러운 주제에 대한 경건성과 함께 복음의 가르침에 대한 단합된 존경심과 사랑을 내포하고 있다.

“이 미술 작품들은 그것들이 진정으로

세계적인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회원들에게 큰 가치를 지닙니다.”라고 피터슨 형제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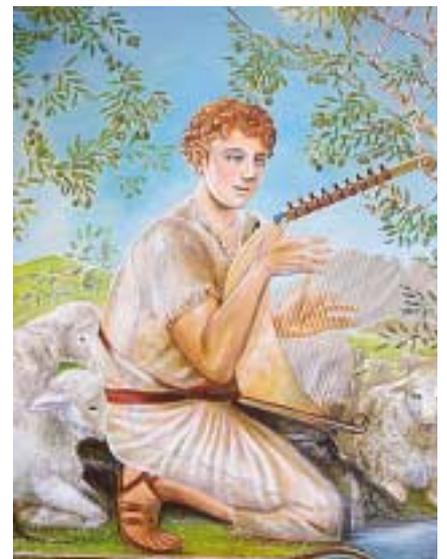
데이터 베이스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요청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검토를 위해 연락처와 함께 사진이나 미술 작품의 견본을 cur-artist-photographer@ldschurch.org로 보내는 것이다. 또는 미술 작품이나 사진의 사본을(원본은 보내지 마십시오.) 연락처 및 간단한 이력서와 함께 우편을 통해 다음 주소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Artists and Photographers

Database

50 E. North Temple St., Rm. 2474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프리랜서로서의 지명은 해당 화가나 사진작가의 지역, 경험, 표현 방식, 활용 가능한 자원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브라질 출신의 화가 제퍼슨 카브랄은 구약전서의 다윗을 화폭에 담았다.

허리케인 딘에 대한 교회의 대처

허리케인 딘이 이번에는 2급 허리케인으로서 멕시코를 두 번째로 강타했을 때, 이 지역 교회 지도자들은 5급 허리케인이었던 딘이 남겨 놓은 폐해로부터 주민들의 복구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자메이카의 지역 관료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했다.

2007년 8월 19일 일요일, 허리케인 딘은 자메이카 대부분의 지역에 강한 바람을 몰고왔지만, 태풍의 눈 주위에

부는 시속 233킬로미터의 바람은 이 섬의 남쪽 지방으로 우회했다. 많은 회원들의 가옥이 지붕을 비롯해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었으나 회원들과 선교사들의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보고되었다.

딘은 8월 21일에 멕시코의 카리브 해안에 상륙했다. 폭풍의 중심부는 멕시코 체투말의 동북동쪽 64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유카탄 반도의 인구가 적은 지역을 지나갔다. 딘은 캄페체 만을 통

과할 때 다시 세력이 강해져 멕시코 베라크루즈의 북쪽 160킬로미터 지점인 중부 멕시코 해안까지 강타했다.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안전하다고 보고되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선교사들을 위해 안전한 가옥과 충분한 식량과 물을 조달했고, 멕시코에 있는 감독의 창고 직원들은 필요할 경우 인도주의적 원조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



허리케인 딘은 자메이카와 멕시코의 건물에 피해를 주었다.

교회가 위급 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다

페루에서의 지진과 멕시코에서의 허리케인이 이삼 일 사이에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신속성과 유연성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본부의 복지 사업부 관리 책임자인 데니스 리퍼스는 “이 두 재난은 교회의 지역 지도자들이 비상 물품을 해당 지역에서 구입하고 저장함으로써 즉각적인 필요 사항을 조달하는 능력과 자원을 보여 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2007년 8월 페루에서 발생한 진도 8.0의 지진은 35년만에 페루를 강타한 가장 치명적인 지진이었다. 지진 발생 직후, 교회의 지역 지도자들은 극심한 피해를 입은 항구 도시 피스코에 있는 후기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페루인들의 긴급 필요 사항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필수 의약품, 수

회원들, 미국의 홍수 피해 복구를 돕다

교회 회원들은 미국 중서부 지방 북쪽의 대부분 지역에 발생한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나누어 줄 화물차 16대 분량 이상의 음식, 물, 청소 도구, 위생 용품 세트 등을 분배하는 것을 도왔다. 600명 이상의 회원들이 피해 지역의 복구 작업을 도왔다.

일주일 간 폭우가 내린 뒤, 홍수로

술 도구, 가족용 식량 상자, 위생 용품 세트, 방수천을 실은 747 화물기가 페루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 동안, 남미 서부 지역 회장인 칠십인 정원회의 왈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는 지역 내의 자체적 식량 구입을 감독하고 대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회소 네 곳을 개방했다.

지진 발생 이틀 후, 곤잘레스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여 지진 피해로 고통 받는 페루인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8,000장 이상의 담요를 페루의 영부인인 필라 노

인해 18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수백 명이 대피해야 했으며, 수천 채의 가옥들이 피해를 입었다. 백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전기가 끊기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모든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안전하다고 보고되었으나, 수많은 회원들의 가옥이 피해를 입었고 세 개의 교회 건물이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 ■

레스 드 가르시아 여사에게 전달하는 기념식에 참석했다.

지진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위협이 멕시코를 향하고 있었다. 허리케인 딘이 칸쿤을 강타할 예정이었으므로, 교회의 지역 지도자들은 식량, 물, 장비 등을 허리케인 강타 예상 지점 근처의 한 시설에 비축하기 시작했다. 폭풍이 방향을 전환하여 유카탄 반도를 위협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은 물품들을 체투말에 있는 다른 시설로 옮겼다. 허리케인이 반대편으로 또다시 방향을 틀자, 제3의 시설에 물품들이 비축되었다.

교회 본부 복지 사업부의 행정 책임자인 릭 포스터는 과학 기술이 위급 상황을 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재난을 잘 예측할 수 있다. 때로는 재난의 정확한 지점까지도 예측이 가능하다.

포스터 형제는 “이러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위험 지역에 살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직원들, 자원 봉사자들은 비상 물품 구입과 사람들을 대피소로 옮기는 작업을 미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솔트레이크시티의 자원 봉사자들이 페루의 지진 피해 지역으로 보낼 식량 상자들을 채우고 있다.

75년만에 국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감독의 창고 프로그램

사라 제인 워버, 교회 뉴스

16세 소년이었던 글렌 엘 리드는 아버지들을 도와 솔트레이크시티 시내에 있는 파이오니어 스테이크 감독의 창고로 360~400kg의 닭고기를 가져갔다.

그는 이 무거운 배달물이 낮익은 건물의 적하장에 올려지는 것을 보았다. 그 건물 안에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 듣긴 했지만 직접 본 적은 없었다. 그는 스테이크 내의 많은 가족들의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다. 대공황 때문에 친구 아버지들 대부분이 실업자였다.

그러나 그 날, 그는 정말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았다. “저는 우리가 궁핍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최초의 창고에서 시작된 복지 광장을 25년간 관리한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리드 장로는 이렇게 회상했다.

청년 시절 그는, 자신이 속해 있던 스테이크 내의 70퍼센트 가량의 남자들이 실직 상태이던 대공황기의 참혹한 시간 동안 교회가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창고에는 석탄과 나무 저장소, 가구 제작실, 통조림 제조실 및 재봉실이 있었고, 식량도 있었는데 그 식량들의 대부분은 그의 아버지처럼 육가공 공장을 소유한 사람들이 기증한 것이었다.

2007년 8월 19일은 교회의 첫 번째 창고였던 이곳의 개관 75주년 기념일이었다. 오늘날, 교회는 미국과 캐나다에 108개, 라틴 아메리카에 29개의 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 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에도 창고들이 있다.

이 외에도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285개의 취업 자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고 할인점인 44개의 데저렛 인터스트리와 100개의 가정 비축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 사업부가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2006년도에 교회 회원들은 623,153일의 노동에 해당하는 봉사를 복지 시설에 제공하였으며, 후기 성도 고용 촉진 노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239,410명이 훈련을 받고 직업을 얻었다.

교회의 첫 번째 창고와 그 중요성에 대해 리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곳을 수천 번이나 지나다녔습니다. 저는 항상 이곳에 대해 훌륭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창고는 1932년 초, 당시 스테이크 회장이었던 (후에 11대 교회 회장이 된) 해롤드 비리 회장과 그의 보좌들이 파이오니어 스테이크의 감독들과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리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무언가 해야 하고 그것



형제들이 1930년대의 한 벌목장에서 궁핍한 자들과 스스로를 돕기 위해 장작을 파고 있다.



파이오니어 스테이크의 감독의 창고는 1932년에 개관했다.

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산적인 토론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창고를 짓고 그곳을 채울 방법을 찾자는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스테이크 지도자들은 파이어폰트 거리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하나를 얻었고 자원 봉사자들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파이오니어 스테이크 회원들은 창고의 공식 개관일에 금식했고 창고에 기부할 물품들을 가져왔다.

창고에 대한 보고서에 러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개관식이 끝날 무렵, 창고를 가득 채우기에 충분한 식량과 물품이 기부되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었다. 또한, 이전에는 결코 느낄 수 없었

던 영, 바로 순수한 형제애가 스테이크 전체에 흘러 넘쳤다.”

초기 십일조 사무실과 같은 기능을 했던 이 창고는, 현대의 후기 성도 창고와 같은 원리 아래 운영되었다. 러드 장로는 “모든 사람이 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돕는 자들을 돕기 위한 교회의 목표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러드 장로는 상품 가격이 매우 낮았던 1930년대에, 많은 농부들이 일꾼을 고용할 여력이 없었으며 대부분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수확을 했고 나머지는 그냥 썩게 내버려두었다고 말했다. 리 회장의 보좌인 폴 시 차일드와 창고 관리자였던 제스 엠 드루리 감독을 비롯한 창고 관료들은 프레드 제이 히스와 그 외 직업

이 없는 사람들에게 농부들과 연락 하라는 임무를 주었고, 많은 사람들을 와서치 산맥 주변의 농장과, 멀게는 아이다호에 있는 농장에까지 보내어 농작물을 수확하고 자원 봉사자들과 나누게 했다.

트럭들은 과일 및 기타 농산물을 가득 싣고 창고에 도착했다. 대부분의 과일들은 통조림으로 만들어졌다고 러드 장로는 회상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는 수용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기증된 너무 많은 양파와 통조림 식품이 창고의 위층에 저장되어 천정이 주저앉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결국 천정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받침대를 설치했다. 양파는 다른 필수품들과 교환하는 데 쓰였다. 창고는 도움을 베풀었으며, 그 누구도 의면하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다.

곧 솔트레이크 스테이크가 파이오니어 스테이크 창고에 동참할 수 있는지 물어왔고, 4년 뒤 그들은 더 큰 건물로 창고를 옮겼다. 또 다른 창고들이 머레이 스테이크와 리버티 스테이크에 세워졌다. 그에 이어, 당시 솔트레이크 계곡 지역에서 운영 중이던 취업 사무실이 여섯 개의 모든 스테이크에 설치되었다.

“파이오니어 스테이크 창고는 모든 창고들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 광장이라고 알려진 곳에 위치한, 1938년과 1939년에 본부 복지 위원회가 건축한 큰 창고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라고 러드 장로는 말했다. ■

2007년 8월 25일자 Church News에서 발췌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경전을 MP3로 들을 수 있게 되다

스인된 자료들을 전 세계의 회원들에게 제공하려는 목표에 맞춰, 현재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경전의 오디오 파일이 교회 웹사이트에 MP3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으며, 이 파일은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이 오디오 파일들은 전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오디오 사용자들에게 경전을 제공할 것이다. 이 기술은 물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동시 편리함을 제공한다. 또 회원들에게 다른 형태의 학습도 제공한다.

2007년 9월 이전에는, MP3 사용자들에게 영어 경전만 사용 가능했었다. 교과 과정부의 경전 조정 책임자인 립 제스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포함시키기

로 결정한 것은 그 두 언어들이 영어를 제외하고 회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 언어의 오디오 버전은 이미 다른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MP3 형태로 전환하기가 보다 용이했다.

그는 MP3 파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공되었다고 강조했다.

교회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오디오 파일을 늘려나가는 계획에는 앞으로 몇 년간 28개의 다른 언어를 추가하는 일이 포함된다. 제스 형제는 물몬경이 현재 106개 언어로 출판되어 있으며 합본은 49개 언어로 출판되어 있다고 말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더 많은 언어로의 번역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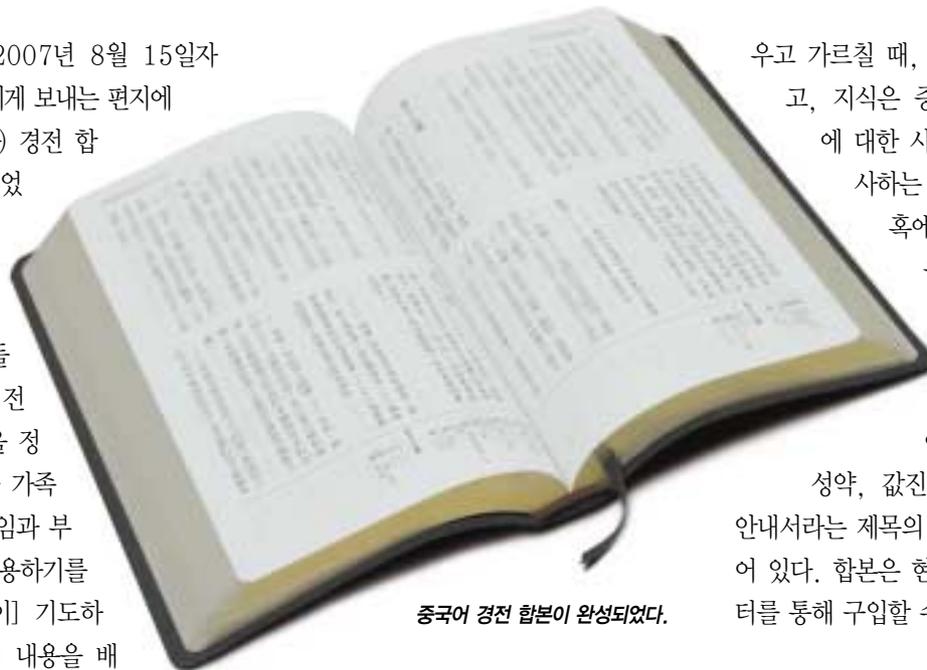
오디오 파일을 들으려면, www.lds.org/audio로 접속한다.

2000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기술 혁신은 교회의 잡지나 신문 같은 인쇄물뿐 아니라 위성 시스템, 네트워크 웹사이트,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하여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전달 체계에 더해져 메시지를 받는 우리의 능력을 엄청나게 증가시켰습니다.”(“너희는 그의 말씀을 모두 마음에 새겨 두라”,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29쪽) ■

중국어 합본

제일회장단은 2007년 8월 15일자 신권 지도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중국어(전통 문자) 경전 합본의 번역이 완성되었다고 발표했다.

제일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회원들이 각자 자신의 경전을 구입하고, 그것을 정기적인 개인 공부와 가족 경전 공부, 교회 모임과 부름을 수행하는데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회원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의 내용을 배



중국어 경전 합본이 완성되었다.

우고 가르칠 때, 그들의 간증이 강화되고, 지식은 증가되고, 가족과 타인에 대한 사랑이 커질 것이며, 봉사하는 능력이 확대되고, 유희에 저항하여 진리와 의를 수호하는 더 큰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중국어 합본에는 물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와 더불어 경전 안내서라는 제목의 학습 참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합본은 현재 지역 교회 배부 센터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

2008년 1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아하나 2008년 1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친구들의 친4쪽과 친5쪽에 있는 “나의 삶은 선물인데; 나의 삶에는 계획이 있어”를 참조한다.

1. 어린이들에게 용감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질문한다. 따르다, 봉사하다, 지키다, 순종하다, 수호하다 등의 용기를 나타내는 동사들을 제시한다. 니파이후서 10:23을 함께 읽는다. 선택의지의 은사에 대해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론한다.

초등학교 2 교재 뒤에 나오는 “예수께서 오심을 준비함” 게임을 복사한다. 12장의 작은 종이를 준비한다. 1부터 6까지 숫자를 두 번 사용하여 각각의 종이에 숫자를 하나씩 적는다. 종이를 접어 통에 넣는다. 어린이들이 앞으로 나와 숫자를 하나 뽑게 한 뒤, 나온 숫자만큼 말을 윷기게 함으로써 게임을 진행한다. 칸 안의 내용을 읽는다. 그것이 올바른 선택을 나타내는 것이면, 왜 이것이 용감한 선택인지 묻는다. 그 내용이 잘못된 선택을 나타내는 것이

면, 그들이 어떻게 용감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게임을 계속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에 용감해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하고 마친다.

2. 초등학교 1 그림 패킷에서 오려내기 1-1부터 1-25까지 준비한다. 어린이들에게 오린 그림을 이용하여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제안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다.

복음 그림 패킷 101 (아담과 이브)를 보여 준다. 어린이들이 모세서 5:4의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가 주의 이름을 불렀고”라는 문장을 찾아 읽도록 도와 준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토론한다. 초등학교 1 패킷에 있는 그림 1-34(자녀들을 가르치는 아담과 이브)를 보여 주고, 모세서 5:12을 읽는다. “아담과 이브가 그들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라고 질문한다.

어린이들에게 부모님이 어떻게 복음을 가르치는지 질문한다. 필요하다면, 좋은 모범이 됨, 가정의 밤을 가짐과 같은 몇 가지 예를 들어 준다. 가족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했고, 아담과 이브는 지상의 첫 번째 부모라는 간증을 전한다.

큰 어린이들을 위해: 창조의 사건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용어들 (빛, 낮, 밤, 궁창, 물, 풀, 나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등등)을 열거한 종이를 준비한다. 어린이들에게 창세기 1장을 펴고 어떤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고 관련

성구를 쓰라고 한다. (예: 빛-첫째 날, 창세기 1:3~5)

3. 노래 준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어린이 노래책, 2~3쪽). 어린이들이 이 노래가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를 알고 이해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어린이들에게 반주자가 이 노래를 연주하는 동안 잘 듣고 무슨 노래인지 알게 되면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일어섰을 때, 이 노래의 제목을 속삭이라고 말한다. 어린이들에게 노래의 후렴구를 불러 준다. 어린이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후렴 부분을 부르고, 가사에서 그들을 위해 누군가가 해 주길 바라는 것을 묘사하는 동사를 찾으라고 한다. 후렴구를 부르고, 칠판에 대답을 적는다. (인도, 안내, 함께 걸음, 도움, 가르침 등) 다음 질문들을 한다: “누가 우리를 인도하죠? 인도자를 갖는 것은 어떤 때에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왜 함께 걸어 줄 사람을 원하나요? 길을 찾아가게 도와 주는 사람이 왜 필요한가요?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후렴구를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도록 도와 주는 부모님, 교사, 지도자, 선지자, 경전을 갖는 축복에 대해 간증한다.

이 노래의 구절들을 가르치고 복습할 때, 어린이들이 각 절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들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요 단어와 구절들을 사용한다. 예: 1절 — 선물(가정, 부모); 2절 — 경전(말씀해 주신 복음); 3절 — 축복; 4절 — 주 약속 하셨네 ■

자립을 위한 조언

“자립을 위한 조언”, *Ensign*, 2000년 3월호, 68~69쪽

주님은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 검소한 생활, 즉 근검하게 생활하고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권고하셨다. 당시 제일회장단 제1보좌였던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절약과 근면의 미덕을 권합니다. 가족이 자립하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일과 절약입니다.”(“너는 탐내지 말라”, *Ensign*, 1990년 3월호, 40쪽) 자립하게 되는 것을 배우면 검소하게 생활하는 능력과 어려운 때에도 자신의 필요 사항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다음에 요약된 오랜 경험으로 입증된 제언들은 개인과 가족이 더 잘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을 받음

남자와 여자는 모두 교육의 기회를 추구해야 한다. 남자들은 자신들의 가족에게 생활 필수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교육 받은 여자들은 그들의 가족에게 축복이 되며, 교육을 통해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세상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어려운 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

일 년 분의 식량을 비축함

일년 분의 장기 보관이 가능한 기본적인 식품들을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런 후 일년 동안 선반에 보관해 둘 수 있는 더 다양한 식품들로 확대시킨다. 어떤 회원들은 비축 할 때 식품, 물, 의복, 응급 처치 용품, 그리고 의약품으로 구성된 생존 키트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물을 비축함

물은 일반적으로 풍부하다고 여겨지기에, 이 단순하고도 기본적인 필수품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종종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의 부족은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위기 상황들 중의 하나이다. 가족은 최소한 일인당 14갤런(약 53리터)의 물을 비축해야 한다고 제언받고 있다.(*가정 생산 및 비축의 기본 원리* [1978년], 7쪽 참조)

뜰과 정원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방법을 배움

정원 관리 기술은 수년간 단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 비록 자신의 정원이 정원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작을지라도, 작은 채소밭에서도 먹을 수 있는 여러 신선한 채

소를 재배할 수 있다. 음식을 재배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적절하게 통조림으로 만들고, 냉동하고, 건조시키며 비축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도 갖게 된다. 이러한 일들은 비록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도, 숙달되기 위해서는 연습과 실습을 요한다.

응급 처치 키트를 준비함

붕대, 향생 연고, 알코올, 팔걸이 붕대, 배탈이나 설사 그리고 열이 있을 때 먹는 기본적인 약품, 비늘과 실 및 그 밖의 기본적인 용품 등 비상시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한다. 필요한 용품이 잘 열거되어 있는 응급 처치에 관한 책자를 구하거나 약국에 문의한다.

부채를 지지 않거나 부채에서 벗어남

예산 내에서 생활하는 기본 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가진 자원들을 현명하게 관리한다. 매달 약간의 돈을 떼어 내어 저축한다.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을 주의한다. 부채가 계속 쌓이게 된다면, 부채를 점점 줄여나가 나중에는 큰 부담이 되는 부채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도록 *금전 문제에서 하나가 됨: 가족 재정 지침*(물품 번호 33293 320)에 나와 있는 원리들을 활용한다.

재봉 기술을 배움

시간을 내어 재봉 기술을 배우면 가족의 의복을 만들거나 수선할 수 있고, 옷을 꿰매거나 커튼이나 식탁보와 같이 가정에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 수 있다. 시간이 있을 때 습득한 기본적인 기술은 어려운 때에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가구를 제작하거나 다시 마감 손질하는 것을 배움

가정에서 쓰는 간단한 가구를 제작하는 기술을 익힌다.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연장으로 종종 아름답고 유용한 물건들을 만들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오래된 가구의 표면을 벗기고 다시 마감 손질을 하거나, 의자 덮개를 씌우거나, 부서진 물건들을 수리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바느질 기술을 습득함

누비 이불이나 퀼트를 만드는 기술, 코바느질, 그리고 뜨개질은 어려운 때에 의복과 침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왕건이네 가정의 밤

안 양 스테이크 안산 와드의 이재철 감독과 유미희 자매는 자녀가 다섯입니다. 늘 믿음직한 첫째 호건이, 씩씩한 둘째 대건이, 동생을 잘 돌보는 하은이, 명량한 채은이, 그리고 이제 백일인 막내 왕건이까지 모두 귀엽고 예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은 다름 아닌 월요일, 가정의 밤 시간입니다. 발 크기가 아빠 손바닥만큼도 안되는 왕건이도 가정의 밤 시간만큼은 뭐가 그리 신나는지 울지도 않고 곧잘 눕니다.

지난 12월 10일 월요일에도 왕건이네 집은 어김없이 가정의 밤을 했습니다. 장남인 호건이가 의젓하게 사회를 하고 네 살 난 채은이의 기도로 가정의 밤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빠는 개회가 끝나자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퀴즈식 공과가 시작된 것입니다. 책 표지에 나온 사람이 누구이고 몇 살 때 하나님의 시현을 보았는가라는 아빠의 질문에 아이들은 너도나도 손을 듭니다. 왕건이도 덩달아 들쭉들쭉 신을 냅니다. 아빠의 공과는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길 바란다."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아멘을 외칩니다.

공과가 끝나면 활동 시간입니다. 활동은 쿠키 만들기. 공과 시간 내내 무릎 꿇고 경건 자세를 유지하던 대건이와 호건이, 그리고 몸을 비비꼬던 하은이와 똥굴똥굴 구르던 채은이까지도 모두 활력이 넘칩니다. 쿠키 만들기라는 엄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릇이며 재료를 챙기는 아이들의 모습이 제법 능숙해 보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활동이라 그런지 대건이와 호건이는 재료를 붓는 엄마에게 참견이 끊이지 않습니다. 덩달아 하은이와 채은이도 주걱과 그릇을 들고 분주합니다. 점점 걸쭉해지는 반죽처럼 왕건이네 집은 웃음과 사랑이 섞이며 떠들썩해집니다. "오늘은 이웃들 줄 거니까 예쁘게 만들어야 해."라는 엄마의 말에 아이들은 수저 모양에서부터 하트 모양까지 신나게 쿠키를 만듭니다. 이윽고 쿠키가 다 구워졌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하나씩 들고 먹기 시작합니다. 막내 왕건이는 신기한 듯 쿠키를 바라봅니다. "너희들이 다 먹으면 누구를 주니?"라는 엄마의 말에도 아랑곳없이 계속해서 쿠키를 먹던 아이들은 천진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왕건이네 집에서 또 다시 커다란 웃음이 터집니다.

이날 가정의 밤은 "하은이 자매님이 기도를 해 주시고 가정의

밤을 마치겠습니다."라는 호건의의 마지막 말로 끝이 났습니다. 폐회 후에는 다들 쿠키를 챙겨두고 이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인 유미희 자매는 가정의 밤을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가정의 밤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가족 경전 읽기를 하면서 "이게 가정의 밤이란다."라고 가르쳐주고, 친척집을 가야하거나 불가피하게 장을 봐야 할 때도 "이게 가정의 밤 활동이야."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정의 밤이 무엇인지 잘 모르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정의 밤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유미희 자매는 "지창하게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끼리 하나가 즐겁다'라는 걸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아빠인 이재철 감독은 "아이들이 어려서 (가정의 밤을 하는 것이) 힘들 때 예전 감독님인 이해근 형제님께서 저희 가족을 자주 초대해서 가정의 밤에 대한 모범을 보여 주셨어요. 그 가정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죠."라고 말합니다.

막내 왕건이를 돌보느라 엄마가 아이들의 등교를 챙겨주지 못할 때도, 아이들은 현관에 모여서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는 걸 빼먹지 않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정의 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의로운 유산을 물려주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합니다. 왕건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누나 채은이처럼 뛰어놀 수 있을 때쯤엔 왕건이네 가정의 밤은 더 시끌벅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만큼 더 행복할 것입니다. 왕건의의 웃음소리가 더해질 테니까요. ■

<기사, 사진 제공: 황미주 자매>



2007년 한국 지역 스테이크 대회

지난 2007년 11월 17일과 18일은 한국 지역의 모든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 스테이크 대회 및 지방부 대회가 열렸다. 이번 스테이크 대회는 2년에 한 차례,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본부에서 하는 말씀을 위성 방송으로 함께 듣는 한국 지역 스테이크 대회로 치러졌다. 점점 커지는 교회 규모에 발맞춰 위성 방송을 통해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제일회장단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계획된 이 모임은 2005년에 처음 시작됐다.



위성 방송을 시청하는 서울 스테이크 회원들



모임 후 환담을 나누는 마산 스테이크 회원들

올 해로 2회째인 한국 스테이크 대회는 제일회장단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감리하는 가운데 칠십인 제일정원회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의 사회로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자신들의 스테이크 혹은 지방부 건물에 모인 성도들은 한날한시에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첫 연사는 기꾸찌 장로였다. 그는 개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며 “고요한 기도를 위해 자신만의 성스러운 장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본인에게 바로 그런 장소는 “소속 와드의 오래된 예배당”으로써 “성스럽고 평화로운 주님의 집에서 그분의 영을 느끼게 된다.”라고 간증을 전했다.

두 번째 연사로 연단에 오른 수잔 더블류 테너 본부 청녀 회장은 2007년 6월에 한국을 방문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말씀을 시작했다. 테너 자매는 용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면서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용기는 다른 모든 덕목들이 시험 받을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말로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연사인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때가 충만한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사는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후기에 복음 회복의 중요한 요소인 성전과 그 안에서 행해지는 구원의 의식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며 성전 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을 전했다. 헤일즈 장로는 또한 “한국은 지금 여러분의 충실함으로 인해 성전을 가지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성전은 한국에 있는 교회 회원에게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축복입니다.”라고 말씀했다.

마지막 연사로 연단에 선 제일회장단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인사로 말씀을 시작했

다. 몬슨 회장은 이어서 기꾸찌 장로와 테너 자매, 그리고 헤일즈 장로에 대한 일화를 언급하며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음에 기쁘다고 덧붙였다. 그런 후, 몬슨 회장은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라고 말씀했다. 또한 몇 가지 개인적인 제언을 드린다고 말씀하며 경청과 인내, 배움과 행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십일조를 바치라는 간단하지만 힘 있는 진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몬슨 회장은 “우리가 그분의 노크를 들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분, 즉 주님이시오, 구주이신 그분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말로 한국의 성도들을 격려했다.

이날 모임 중 특색 있었던 것은 앞서 나온 세 명의 연사가 말씀의 마지막에 모두 한국어로 간증을 전했다는 사실이다. 정확하지 않은 발음이었지만 세 연사가 전하는 영과 함께 한국 성도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한편, 토요일 모임은 각 스테이크와 지방부 별로 진행되었다. 서울 스테이크에서는 ‘선교 사업’이란 주제로 회원들의 간증을 듣는 방식으로 토요일 저녁 모임을 진행했고, 서울 강서 스테이크는 ‘표준을 높이라’는 주제로 토요일 저녁 모임을 가졌다.

이틀간의 한국 지역 스테이크 대회 동안 한국의 모든 스테이크와 지방부는 사랑과 영으로 넘쳤다. 커다란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모습은 진지하고 영적이었으며, 또한 아름다웠다. ■

〈곽채림 기자, 김민정 기자, 김연학 기자〉

서울 남 스테이크 동작 와드 청년들의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청소년 상호 향상 모임의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상호 향상 모임 사례들을 모아 일 년 동안 연재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로 서울 남 스테이크 동작 와드를 찾았다.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표준에 맞는 치마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요즘에 동작 와드 청년들은 표준에 맞는 치마를 직접 만들었다.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동작 와드 청년 상호 향상 모임을 소개한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10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서울 남 스테이크 동작 와드 청년들의 특별한 상호 향상 모임에 찾아가다.

오후 2시가 되자 청년 회장단이 양손에 한 가득 짐을 들고 들어섰다. 짐을 받아 든 청년들은 그 짐을 풀어보느라 모임을 시작해야 하는 것도 잊었다. 청년 회장단이 들고 온 것은 따뜻한 겨울을 떠올리게 하는 체크무늬로 된 모직 천과 재봉틀이었다. 2주 후에 있을 “청년 창립 기념행사” 전시 부문에 낼 작품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물건들이었다. 재봉틀과 천을 확인하고 한껏 들뜬 청년들은 작품 제목인 ‘표준에 맞는 치마’를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동작 와드 청년 회장단이 ‘표준에 맞는 치마 만들기’라는 상호 향상 모임을 떠올린 것은 청년 창립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다. 청년 회장단은 기념행사에 전시할 동작 와드 청년들만의 작품을 구상하던 중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표준에 관해 언급된 내용을 떠올렸다. 짧은 치마가 거리에 넘치는 요즘, 청년들이 표준을 이해하면서 따뜻하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치마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청년 회장단이 치마 만들기를 처음 제안했을 때, 청년들은 대부분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의논



을 하고, 면밀하게 준비를 한 끝에 청년들은 새로운 시도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되었다.

일단 치마를 만들겠다고 마음먹었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만만치 않았다. 청년 창립 기념행사까지는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기한이 턱 없이 부족했고, 재봉틀로

무언가를 만들어 본 경험자가 없다는 것도 어려움이었다. 그때 동작 와드 청년들과 회장단이 생각한 것이 바로 철저한 준비였다.

청년 회장단과 청년들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찾았다. 인터넷의 한 홈페이지에서 표준에 맞는 길이면서 유행에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디자인을 발견했고, 치마의 도안을 홈페이지 운영자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만드는 과정 하나 하나가 자세히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의지하여 드디어 치마를 만드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모임 당일, 청년 회장단이 준비한 따뜻한 느낌의 천과 재봉틀을 가지고 청년들은 본격적인 치마 만들기에 들어갔다. 먼저, 공과 교실 바닥에 청년들이 고른 천을 한 가득 펼쳐 놓고 도안대로 그리고 잘랐다. 순조롭게 시작한 했지만 경험자가 없었기에 예기치 못한 실수가 끊이지 않았다. 그 중 하나가 치마를 도안대로 자르고 나서야 알게 된 ‘시첩 방향.’ 천을 시첩 방향대

치마 만들기



로 잘라야 울이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잘라 버린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재봉틀을 막상 사용하려는 순간 재봉틀이 오래된 탓에 실을 끼우는 방법을 아무도 몰랐던 황당한 상황도 연출이 되었다. 그야말로 좌충우돌 힘든 순간들이었지만 동작 와드 청녀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치마를 만들어갔다. 그 덕분인지 뜻밖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다. 가족 강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에 온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재봉틀에 실을 끼우는 법과 재봉틀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다. 재봉틀을 다루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유심히 지켜 본 청녀들은 훨씬 자연스럽게 천을 이어 붙이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법 치마 모양이 만들어졌다. 더불어 청녀들의 표정도 점차 진지해졌다. 자신들이 치마를 만드는 것이 성스럽고 영화로운 주님의 표준을 따르는 일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김지혜 자매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시중에 판매하는 옷들 중에 예쁜 치마가 많기는 하지만 표준에 맞는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단정한 치마를 파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치마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걱정하기도 했지만 표준을 따를 수 있고, 게다가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기대되었습니다.”

또한 김지혜 자매는 상호 향상 모임에 대해서 “청소녀와 고문

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우정을 키울 뿐 아니라 신앙 또한 증진 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간증을 전했다.

동작 와드 청녀 회장인 한아름 자매는 치마 만들기라는 활동을 통해서 “청녀들이 앞으로 옷을 구입할 때도 표준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자신의 바람을 전했다. 그리고 동작 와드 청녀들에게 “회장단과 청녀들이 함께 발전해 나가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사랑을 전했다.

치마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재봉틀을 처음 만져보는 청녀들이 치마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작 와드 청녀들은 치마 만들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깨달았다. 치마를 만드는 일처럼 표준을 지키는 것 또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사실을 청녀들은 알게 되었다.

이제 동작 와드 청녀들의 치마가 무릎 위로 올라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잘 준비된 한 번의 상호 향상 모임이 동작 와드 청녀들을 표준으로 인도했다. ■

〈기사, 사진 제공: 이상미 자매〉



일어나 빛을 발하라

2007년 11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대부분에서 진행된 제2회 전국 청년 독신 문화 축제- 전국 청년 독신 영상제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후기 성도 젊은이들의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전국 청년 독신 문화 축제’는 한국에 사는 후기 성도 청년 독신들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건전한 교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된 모임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영상제’라는 제목에 걸맞게 청년 독신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를 감상하는 시간으로 후기 성도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전국의 신권 지도자들이 함께했다.

모임은 길영권 인천 스테이크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됐다. 힘찬 개회 선언 뒤 연단에 선 지역칠십인 이용환 장로는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화내지 않는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라는 말씀을 통해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을 환영했다.

뒤이어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최윤환 장로가 아내인 구분경 자매와 함께 ‘영원한 결혼’이라는 주제로 청년 독신들

에게 말씀을 전했다. 아내와 데이트를 하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씀을 이끌어간 최윤환 장로는 “완벽한 배우자를 찾으려 하지 말고 빛이 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청년 독신들은 재미있는 비유와 사례, 그리고 시청각자료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즐거워했다.

다음 순서는 감리자로 참석하신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장로 부부의 말씀이었다. ‘인생의 여정에서 배운 교훈들’이라는 주제로 에번즈 장로 부부가 전한 것은 선교사업, 교육, 결혼, 봉사, 인내의 다섯 가지 원리. 시청각자료와 함께 진행 된 말씀에서 에번즈 장로는 “이번 영상제가 여러분에게 결정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을 거듭 강조했다. 에번즈 장로의 말씀을 들은 부산 종교 교육원의 최훈기 형제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삶에 적용해야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라고 간증을 전했다.

후기 성도 청년 독신들을 영적으로 고양시켰던 말씀이 끝난 후, 본격적인 영상제의 막이 올랐다. 우렁찬 박수와 함께 시작된 영상제는 젊은이들이 준비한 노래와 연주, 그리고 사물놀이 등이 그 서막을 장식했다.

열띤 공연이 끝난 후, 영상제의 첫 작품을 소개하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다. 첫 순서는 광주 종교 교육원이 제작한 영화 ‘리턴.’ 교회를 떠났던 한 청년이 친구의 사랑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는 내용의 감동적인 이 영화는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다음 순서는 서울 동 종교 교육원의 ‘내 안의 빛을 찾아서.’ 영화를 연극처럼 만든 이 독특한 작품은 교회 안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위로하는 한 편의 따뜻한 코미디였다.

세 번째는 중부 종교 교육원의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가 관객을 찾았다. 15분이라는 짧은 분량의 이 영화는 놀랍게도 클레이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다. 이 작품은 등장인물들



왼쪽부터: 통역을 담당한 백길환 형제,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장로, 최윤환 장로와 구분경 자매



을 손수 만들고 한 동작 한 동작씩 움직여가며 촬영한 중부 종교 교육원 청년들의 노력과 수고로 완성됐다.

‘양 한 마리’라는 제목으로 상영된 네 번째 작품은 서울 서종교 교육원이 제작했다. 선교사를 인질로 잡은 은행 강도가 개종하기까지의 이야기를 풀어낸 이 영화는 빼어난 화면과 편집, 그리고 연출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실제 은행을 빌려서 찍어낸 경찰과 강도의 대치 장면은 긴박감 넘치는 화면 구성으로 여느 영화 못지않은 재미를 선사했다.

마지막은 부산 종교 교육원이 제작한 로맨틱코미디 ‘아름다운 기적’이 장식했다. 시종일관 발랄하고 즐거운 장면과 대사로 진행된 이 영화는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유쾌하게 그려 많은 공감을 얻어냈다.

모든 영화가 끝난 후 무대에 오른 에번즈 장로는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아주 즐거운 날을 보냈습니다.”라는 말로 지난 일 년 간 노력하고 수고한 청년 독신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광주 종교 교육원의 영화 제작에 참여했던 이경민 형제는 이 경험이 다시는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영화를 만들면서 청년들 사이에서 사랑과 우정, 그리고 변하지 않는 간증을 느꼈다.”고 밝혔다.

전국의 청년 독신들이 함께하는 시간은 안식일이었던 11일까지 계속됐다. 청년 독신들을 위한 특별 성찬식이 마련 된 것이다. 600여 명의 참석자들을 위해 18명의 신권 형제들이 일제히 성찬 전달을 하는 것은 한국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서울 서종교 교육원의 이인주 자매는 “다함께 성찬 전달을 하는 모습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라고 성찬식에서 느꼈던 간증을 전했다.

마지막 연사로 연단에 선 에번즈 장로는 선택과 결정에 대해 말씀했다. 그는 선교 사업과 결혼 등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대로 결정하고 선택

해야 한다는 원리를 가르쳤다.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것이고, 저와 제 가족의 삶에서 그것이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라고 말씀하며 순종이 주는 축복과 기쁨에 대해 강조했다.

성찬식이 끝난 뒤 신권회와 상호부조회 합동 모임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에번즈 장로는

청년들의 질문에 대해 관련된 교리와 원리를 설명하고,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기도 하면서 올바른 가르침을 전했다. 특히 경전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유지하는가라는 질문에 “보통 하루에 한 시간씩 경전을 공부하는데, 경전을 읽지 않으면 외로운 날이 됩니다.”라고 말하며 매일 경전 공부 할 것을 권고했다.

즐겁고 흥겨웠던 전날과 달리 안식일 모임은 영적이고 성스럽게 진행됐다. 서로가 서로의 간증과 영을 느낄 수 있었던 이 안

식일 모임은 부산 종교 교육원이 준비한 합창처럼 그야말로 “오 사랑스러운 아침”이요, “큰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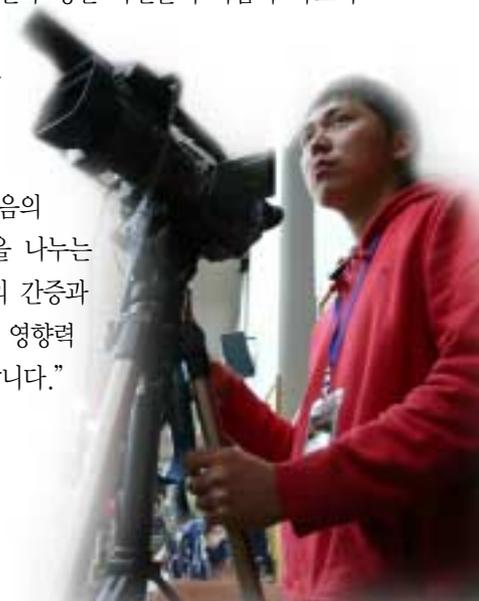
최윤희 장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청년 독신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개인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함께 할 때 강해집니다. 그래서 부부가 있는 것이고, 친구가 있는

것이고, 청년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또한 에번즈 장로는 “주님의 영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라고 말씀하며 이 땅의 모든 청년 독신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일 년 동안 이번 모임을 준비했던 서울 서종교 교육원 김대영 형제의 다음 소감은 전국 청년 독신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직까지 이 땅에 저희 후기 성도 청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영향력은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독신들이 함께 해서 복음의 원리와 교리를 배우고 우정을 나누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의 간증과 영을 증진시켜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브리검 영-하와이 대학교 휠라이트 총장 방한 노년의 모임



지난 2007년 12월 4일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에서 스티븐 시 휠라이트 브리검 영-하와이 대학교 총장과 그의 아내 마가렛 휠라이트 자매, 그리고 입학처장인 메하 형제와 함께 하는 특별 노년의 모임이 있었다. 평일인 화요일 저녁이었음에도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모임은 북아시아 지역회장단의 최윤환

장로가 감리했다.

연단에 선 휠라이트 자매는 중국과 일본 등 여러 아시아 지역을 다녔던 지난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 모든 경험이 축복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간증을 전했다.

마지막 연사로 연단에 오른 휠라이트 총장은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유타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 후, 그는 하버드 경영 대학과 스탠포드 경영 대학원에서 교편을 잡으며 학생들과 오랜 세월 함께 호흡을 했고, 경영 대학의 부학장이자 출판 사업 책임자로 한창 역량을 발휘하던 때인 2006년 8월에 하버드 경영 대학원에서 은퇴했다.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곧 주위의 만류에 부딪혔다. 휠라이트 형제는 교회를 우선으로 하는 가치관을 바꾸라는 동료들에게 “나는 내 가치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던 당시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는 또 “저에게 있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은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사명이다.”라는 간증을 전하며 주님의 일을 우선할 것을 강조했다.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영국 런던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고, 브리검 영-하와이 대학교 총장으로 부름 받기 전까지 부부 선교사로 봉사한 휠라이트 형제와 자매는 다섯 명의 훌륭한 자녀와 열다섯 명의 손자 손녀를 두는 축복을 받았다.

서울 스테이크 <곽채림 기자>

청녀 우수 작품 발표회 지난 2007년 11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서대문 와드에서 서울 스테이크 청녀 우수 작품 발표회

가 열렸다. 청녀들의 솜씨를 감상하고 우정을 나누는 이날 모임에서는 언니에 이어 청녀 메달을 목에 건 서대문 와드 남윤정 자매의 간증을 통해 영적인 시간이 되었다. 또한 2부 순서로 열린 라이브 카페에서는 청소년들의 음식 솜씨와 재능을 엿볼 수 있었다.

청주 스테이크 <김윤희 기자>

여성 대회 지난 2007년 11월 9일과 10일 양일간, 청주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자매 40여명이 충북 청원군에 소재한 ‘청원효명 온천 스파이스’에서 여성대회를 가졌다. 온천에서 피로를 푼 자매들은 “자녀들과의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고 건강 관리법을 배우는 등 알찬 시간을 가졌다.

정정합니다

지난 2007년 12월호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 실렸던 초등학교 어린이 작품 중 박재현 어린이의 성별 표기가 잘못되어 정정합니다. “박재현, 남, 13세”는 “박재현, 여, 13세”의 잘못입니다.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해외 2명/부부 선교사 1쌍



전영선 장로
강서 스테이크
신월 와드
미국 캘리포니아
샌 페르난도 선교부



최석현 장로
강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
캐나다 토론토
선교부



권찬태 장로, 김정애 자매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

“너희는 ...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시편 82:6)

세계 곳곳에는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훌륭한 어린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종류의 음식을 먹고,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르게 생긴 집에 살지라도,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포스터를 리아호나에서 떼어냅니다. 점선을 따라 주의해서 오릅니다. 경전 구절이 있는 쪽을 앞으로 해서 열두 개의 네모를 순서대로 벽에 붙이거나 포스터가 잘 보일 만한 곳에 붙입니다.

매달, 네모 위에 적힌 참조 성구를 찾아보거나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의 인용구를 읽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성구 또는 인용구를



외웁니다. 마친 후에는 네모를 뒤집어서 다시 벽에 붙입니다.

여러분의 지도는 올해 말까지 완성될 것이며 세계 여러 곳의 친구들을 볼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중요한 축복과 기회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매달 경전을 주제로 한 색칠하기 페이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림을 색칠하고 포스터 가까이에 걸어둘 수 있습니다.

© 2008 by Intellectual Reserve, Inc.

1. 1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선언문,” 단락 2)

2. 2월

경전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그리고 그분들께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니파이후서 4:15

3. 3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다.

요한1서 4:14

4. 4월

나는 선지자를 따르겠다.

아모스 3:7

5. 5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우리 가족에게 오도록 계획하셨다.
나는 우리 가족을 강화할 수 있다.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다!” (“선언문,” 단락 1)

6. 6월

성전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 축복이다.

교리와 성약 124:40

7. 7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것이다.

교리와 성약 18:15

8. 8월

나는 침례와 확인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보이겠다.

교리와 성약 68:27

9. 9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은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마가복음 11:24

10. 10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해 그분을 섬기겠다.

교리와 성약 4:2

11.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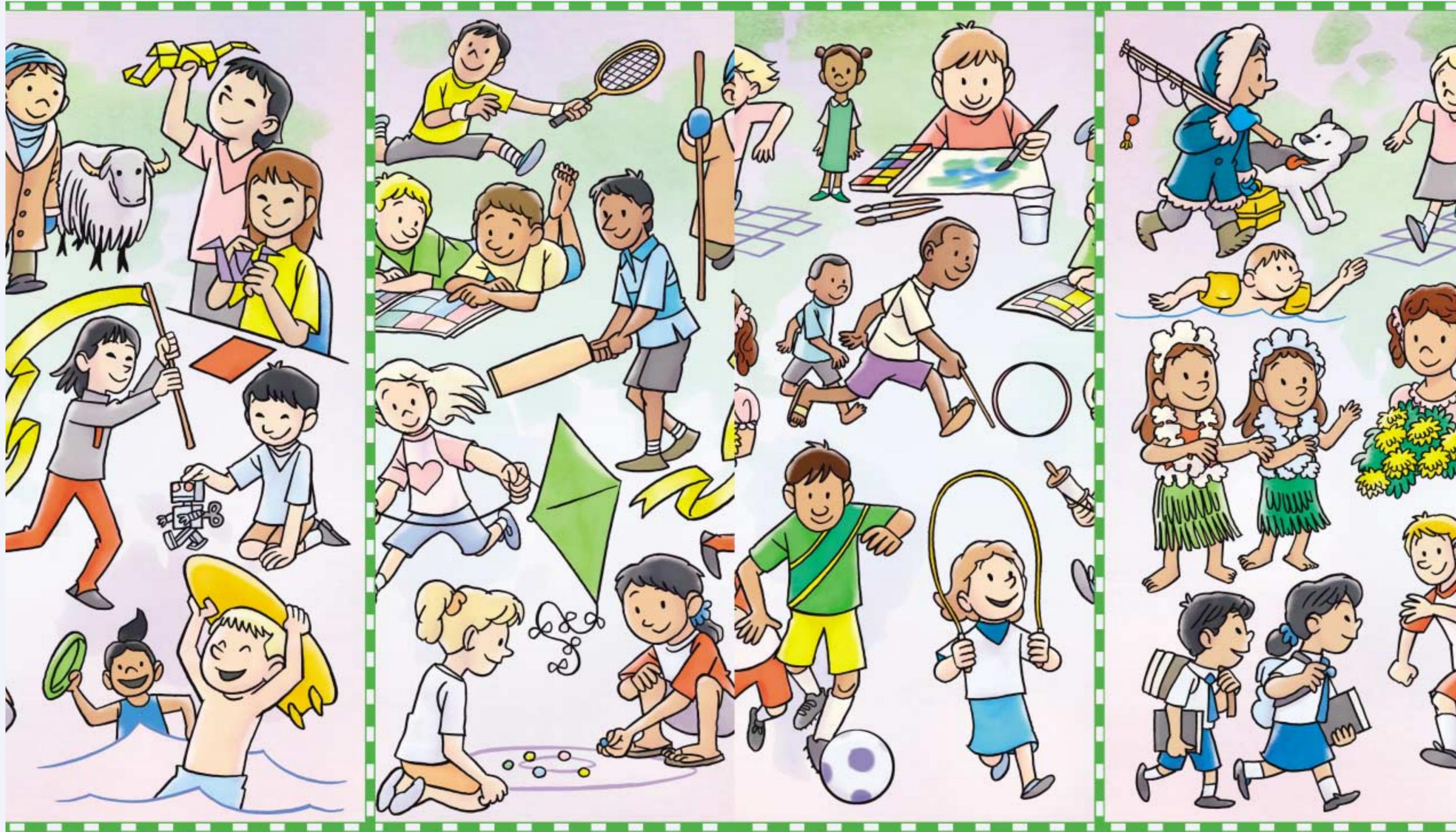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교리와 성약 59:7

12. 12월

나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을 사랑한다.

니파이후서 25:26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포스터(물품 번호 02259 320)는 교회 배부 센터에서 더 구할 수 있다.